

2022년
참여형 현장연구
지원사업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질적 연구

책임연구원

김은영(대전화정초등학교 교육복지사)

공동연구원

김상만(대전변동중학교 교육복지사)

이윤경(대전옥계초등학교 교육복지사)



※ 본 연구는 2022년 참여형 현장연구 공모사업에 선정된 연구로써
본 연구결과는 사회서비스원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차 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3
제2절 연구목적 및 연구 문제	6
제2장 이론적 배경	7
제1절 복지 사각지대 정의	9
제2절 복지 사각지대 현황	11
1. 복지 사각지대 현황	11
2.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	15
제3절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18
1. 교육복지 개념	18
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개념	21
3.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체계	23
4. 대전광역시 교육비 신청현황	27
제3장 연구방법	33
제4장 연구결과	39
제1절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분석	41
1.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	44
2.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 해결 방안	53
제2절 소결 및 논의	60
제5장 결론 및 제언	63
제1절 결론	65
1.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	65
2.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 해결 방안	70
제2절 정책적 제언	72
참고문헌	75

표/그림 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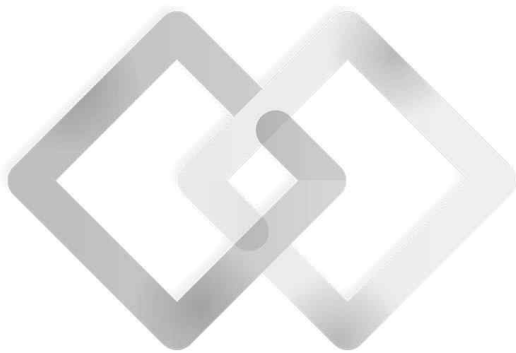
<표 2- 1> 복지 분야 사각지대 규모에 대한 인식	12
<표 2- 2>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사각지대 문제가 가장 심각한 급여	13
<표 2- 3> 사각지대 발생 이유	13
<표 2- 4> 대상자의 비신청 이유	14
<표 2- 5> 현행 위기가정의 발굴체계 한계	14
<표 2- 6> 2022년 초·중·고 교육비 지원 기준	16
<표 2- 7> 우리나라 교육복지 실천 현황	21
<표 2- 8> 대전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현황(초·중·고)	25
<표 2- 9> 대전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현황	27
<표 2-10> 대전시교육청 초·중·고 교육비 신청현황	28
<표 2-11> 교육비 신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사업학교 및 비 사업학교 비교	29
<표 3-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36
<표 3- 2> 주요 인터뷰 내용	37
<표 4- 1> 영역분석 및 주요 범주	43
[그림 2- 1] 대전시교육청 초·중·고 교육비 신청	29
[그림 2- 2] 교육비 신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사업학교 및 비 사업학교 비교	30

2022년
참여형 현장연구
지원사업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질적 연구**



제1장 서론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2004년 대구 동구 불로동 5세 아동 아사 사건과 2014년 소아 세 모녀 사건 그리고 2022년 9월 수원에서 세 모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으로 우리 사회에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이슈로 뜨거웠다. 정부는 이 사건들을 계기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지역사회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2018년 4월 증평 모녀 사건, 2022년 9월 수원 세 모녀 사건, 자립 시설 퇴소 청년의 자살 등 우리 주위에는 도움이 필요하고 도움을 받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는 사회안전망의 구멍으로 비유할 수 있다. 즉, 사회안전망이 필요하지만, 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집단을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다(홍성대, 2011).

1997년 외환위기로 실업자와 빈곤층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1999년 9월에 제정, 2000년 10월에 시행되면서 기존의 생활보호법은 폐지되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빈곤선 이하의 저소득 국민에게 생계·교육·의료·주거·자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주어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우리나라의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면서 한국의 빈곤 정책에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2014년 발생한 송과 세 모녀 사건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에 대한 시발점이 됐는데 이 사건 발생 이후 정부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을 완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동시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개발하여 가동하였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건강보험료, 전기료, 공공주택 임차료 체납 정보 등 34가지 개인정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예측해 내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2019년 3월 국회 보건복지부 소속 정춘숙 의원실이 사회보장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2015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80만

6,070명의 복지 사각지대 고위험군을 선정해 이 가운데 24.2%(19만 5,258명)만이 각종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다양해지는 신종 위기 변수로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는 발굴할 수 없고, 특정 가구가 왜 고위험군 상위로 판별돼 선정되고 또는 하위로 판별돼 미선정 되었는지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뉴스핌, 2019. 10. 4.).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장기 결석 여부, 영유아 건강검진·예방접종 실시 여부, 병원 기록 등 각종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체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보호가 필요한 아동으로 추정하여 읍·면·동으로 자동 통지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빅데이터 정보를 통해 고위험 예측 가구가 추출되면 읍·면·동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하고 이 과정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학대 의심 신고를 하고, 양육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데,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학대 피해 아동 발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학대 피해 아동 발견율은 0.006%로 2019년 평균 아동학대 발견율 0.38%와 비교해도 크게 차이가 나타나며, 아동학대 발견율이 가장 낮은 지역인 서울(0.17%)에 비해서도 3분에 1 수준으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학대 피해 아동 발견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e아동행복지원시스템도 치명적인 한계가 나타났다(이코리아, 2022. 10. 5.).

최근 발생한 수원 세 모녀 사건은 행정정보망을 사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만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복지업무 종사자 700여 명을 대상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생 이유에 대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45.7%가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아서’ 라고 응답하였다(충청투데이, 2022 2. 28.).

우리는 지난 3년간 유례없는 팬데믹으로 인해 사회, 경제적으로 위기를 겪는 사례가 많이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아동·청소년의 일상의 혼란이 더 가중됐는데, 심리·정서 문제, 대인관계 문제, 학교 기능 부재, 학습격차에 따른 교육소외, 아동학대, 안전과 돌봄 등에서 많은 변화와 혼란을 보인다.

2021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발표한 ‘2021 아동의 행복 지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내 아동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떨어지고 우울감과 불안감이 높아졌으며, 빈곤 아동이 비 빈곤 아동보다 행복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한, 신 취약계층의 출현과 확대로 아동의 빈부격차 양극화는 빨라지고 있다. 신 취약계층의 발생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곤란에 처한 가정에 대한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회적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되는 상황이며 정부와 지자체별로 다양한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복지전문가 설문 조사에서도 대다수 전문가가 향후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복지 문제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로 꼽았다(공주은, 2020, 재인용).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신 취약계층이 생기면서 복지 사각지대의 발생이 광범위해지고 있고, 그 이전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많은 정책이 있지만, 해소되는 사각지대 이상으로 복지환경이 지속해서 변화하고 있으므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초점도 달라져서 새로운 사각지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복지 사각지대는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사회적 쟁점이 되는 것이다(공주은, 2020).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하게 대두된 사회 문제 중 하나가 교육과 복지의 사각지대였다. 학교에 가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돌봄의 공백,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또래 관계에서 형성하지 못해 생기는 사회성의 부재와 온라인 학습으로 인해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과 학습 지원에 따른 학력 격차의 심화와 아동학대로 인한 사건·사고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학교는 학생들이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보내는 장소이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내는 사회환경이다. 따라서 학교는 지적향상의 기능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심리·사회적 기능을 향상해 학생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역할도 수행하여야 한다. 즉 학교는 학생들에게 최적의 심리·사회적 환경을 제공하여 학생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행복한 학생을 실현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전구훈, 2021).

학생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소로써 학교는 이런 의미로 사회복지서비스에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이다. 이런 교육 현장인 학교에서도 복지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학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 학교 부적응, 저출산 현상의 심화로 교육복지정책의 중요성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육 현장의 교육복지정책 확대와 서비스 수요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 및 범위에 대한 교육복지정책이 확대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교육복지사업 주체와 서비스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 현장 내 빈곤 아동을 위한 교육복지 전달체계 즉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3개

중앙부처는 교육정책 방향과 패러다임에 대한 상호공유나 협력 없이 유사 정책을 서로 경쟁하듯이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안타까운 상황에 놓인 학생들을 많이 보게 된다.

따라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생각하는 복지 사각지대와 학교라는 특수한 2차 서비스영역에서의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 알아보고 그 특성에 맞는 정책적 제언으로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 지원방안의 필요성으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제2절 연구목적 및 연구 문제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의 개념과 현황을 살펴본다. 또한, 대전광역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통해 학교 내에서 복지 사각지대 학생의 지원방안을 살펴보고 5년 이상의 교육복지사와 지역사회에서 학교와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한 실무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개념과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질적 연구를 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변화와 제언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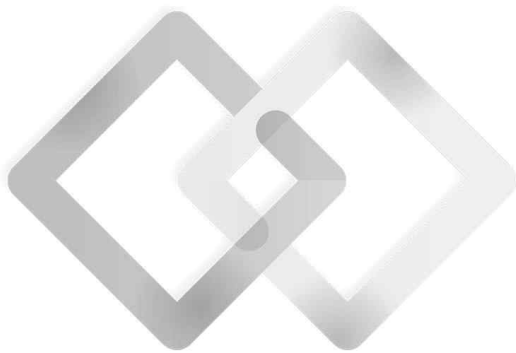
이 연구를 통해 우리는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으로 신 취약계층의 발생, 소득 수준의 양극화, 더욱 심해진 교육격차 등 변화되고 있는 복지환경에서 학교 안에서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전문가와 지역 내 아동·청소년 대상 복지서비스 담당자를 대상으로 아동 청소년 복지서비스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알아보고 그 대상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2022년
참여형 현장연구
지원사업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질적 연구**



제2장 이론적 배경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복지 사각지대 정의

사각지대란 어느 위치에서 점으로써 사물이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게 되는 각도, 또는 어느 위치에서 거울이 사물을 비출 수 없는 각도를 말한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22). 또한, 관심이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구역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며 무기의 사정거리 또는 레이더와 관측자의 관측 범위 안에 있으면서도 지형 따위의 장애로 인하여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구역, 축구 따위에서 선수의 위치상 슈팅을 하기 어려운 각도, 무선 송신기로 송수신할 수 있는 거리 안에 있으면서도 신호를 받을 수 없는 구역 등을 뜻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반해, 그보다 조금 나은 생활을 하므로 여러 가지 혜택에서 제외되는 차상위계층의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뜻하기도 한다(우리말샘, 2022).

김제선(2011)은 ‘사각지대’라는 용어가 학술적으로 합의된 개념 정의가 없어 연구자의 관점이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대체로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첫째, 명백하게 시각에서 배제 또는 제외된 상태 둘째, 시각에서 배제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인 관심이 미치지 못하는 상태 셋째, 시각에서 배제되지도 않고 관심도 있지만 어떠한 장애물로 인하여 관심이 미치지 못하는 상태 등이 바로 ‘사각지대’의 의미이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사각지대’란 단어를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공통으로 어떤 정책이나 제도 그리고 서비스 대상 범주의 누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혹은 시급한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강조를 위한 개념으로 사용한다. 홍성대(2011)는 사각지대를 복지급여를 통한 복지 욕구 충족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불충분한 경우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사각지대의 지형은 복잡하고 다양하게 형성된다고 하였다.

복지 사각지대란 무엇인가? 사회복지와 관련한 사각지대는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의 결함’으로 인식되어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로 사용됐다(김수봉 외, 2005).

지난 2014년 발생했던 송과 세 모녀 사건은 복지 사각지대의 존재를 명백하게 보여주

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 포함되고 싶지만, 수급권자로 선정되지 못했거나, 수급을 신청하지 않아 비 수급 상태에 머물러 있는 빈곤층을 말한다. 즉 생활 여건상 복지 욕구에도 불구하고 욕구 충족에 필요한 적절한 복지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김진욱, 2020).

김원섭(2013)은 복지정책 분야에서 ‘사각지대’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대표적인 분야를 기초생활보장 제도라고 하였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빗겨나가거나 미세하게 나은 생활을 하는 계층은 지원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수혜자 자격을 받지 못하는 계층 즉, 차상위계층 혹은 소외계층을 지칭하고 있다. 또한, 복지 대상자가 되어야 하지만 행정 및 전달체계의 미흡 등으로 대상자에서 누락 되는 경우도 최근 좁은 의미의 복지 사각지대로 일컬어지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중심의 공공부조 변천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부각 되면서 국내의 복지 사각지대 논의는 주로 제도의 엄격성에서 비롯되는 사각지대 범위 문제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을 전제로 비수급 빈곤층과 같이 욕구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수급할 수 없는 상태에 대한 언급이 많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제도를 기준으로 제도의 수급 여부와 수급 기준이 적절한가의 두 가지 기준을 대부분 포괄한다.

복지 사각지대 개념은 4가지 범주에서 공통으로 형성되며, 첫째, 선정기준을 충족하지만, 비수급 상태인 집단, 둘째, 선정기준을 일부만 충족하는 비수급 집단, 셋째,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수급 집단, 넷째 일부 수급 집단 등이다(김은하 외, 2018).

홍성대(2011)는 복지 사각지대를 복지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구 충족에 필요한 적절한 복지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복지 욕구가 있음에도 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급여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급여의 양이 충분치 않거나, 급여의 내용이 수급자의 욕구에 부합하지 않는 등의 경우로 정의할 수 있다. 즉, 복지 사각지대는 사회안전망의 구멍으로 비유할 수 있다. 사회안전망이 필요한데도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집단으로 정의하였다.

사각지대는 비수급 빈곤층과 혼영 하여 쓰이기도 한다. 먼저 비수급 빈곤층은 협의의 사각지대와 개념이 유사하다. 협의의 사각지대는 수급 기준을 충족하지만, 수급을 받지 않는 상태와 상황을 정의하기도 하고, 기초보장 선정기준에 부합하지만, 기초보장급여를 수급하지 않고 있는 가구를 의미하기도 한다(허용창 외, 2021). 또한, 비수급 빈곤층에 대

한 정의는 ‘기준 중위소득 40%를 빈곤 기준선으로 하여, 이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인정액을 가지고 있으면서 비수급 지위에 있는 자들’을 의미한다(보건복지부, 2019; 성은미 외, 2020). 더 나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맞춤형 개별급여로 각 급여 선정기준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자격이 있으나 비수급 상태인 집단을 의미하기도 한다(한경훈 외, 2020).

광의의 사각지대는 빈곤층이지만 비수급 상태에 있는 인구를 의미로 포함하여, ‘중위소득 50%’ 미만의 소득을 가진 비수급 상태 인구로 보기도 한다(문혜진 외, 2019). 협의의 사각지대 정의에 따라 비수급의 원인은 수급에 대한 낙인, 제도에 대한 정보제공의 부족 문제, 제도의 복잡성으로 인한 접근성 제약, 수급 신청과정에서의 거래비용 비용, 낙인 등이 있다.

제2절 복지 사각지대 현황

1. 복지 사각지대 현황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 가구 발굴에 힘을 쏟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공적인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복지 대상자는 2016년 20만 8,652명에서 2021년 133만 9,909명까지 6배 이상 증가하였고 복지 대상으로 선별됐음에도 지원받지 못한 대상자는 같은 기간 16만 1,872명에서 67만 6,035명으로 4배 이상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 2022).

보건복지부는 2015년 12월부터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위기 가구 발굴에 활용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위기 정보를 기반으로 지원 필요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 조사대상자를 선별하여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으며 조사대상자 모두가 복지급여·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복지 대상자는 아니었다(보건복지부, 2022).

정부가 ‘18년 7월 복지 위기 가구 발굴대책’ 발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각지대의 사례가 발굴되면서 ‘19년 9월에 복지 위기 가구 발굴대책 보완 조치’를 발표하고 읍면동의 ‘원스톱 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사각지대를 관리할 수 있는 행정 인원들을

확충하는 노력을 지속해서 하고 있다.

21년에는 복지급여 수급자가 신청 가능한 사업을 패키지로 제시하고 수급 가능자가 포괄적인 신청이 가능하게 하고 일반 국민의 경우 복지 멤버십을 통하여 개인 상황에 대한 주기적 모의 조사 및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노력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민연아, 2020, 재인용).

복지 사각지대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9년 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50개 시군구청 복지담당자 300명, 100개 읍면동 주민센터 200명, 등 총 700여 명을 대상으로 복지 사각지대 인식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민연아, 2020).

<표 2-1>은 사회보장제도 수급자 선장 적격성 제고 및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모니터링 연구에서 ‘복지 분야 사각지대 규모에 대한 인식’ 여부에 관한 질문의 답변이며 복지 사각지대 관련 질문의 경우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43.2%는 사각지대가 많다고 응답하였다(임완섭, 2018).

<표 2-1> 복지 분야 사각지대 규모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구분	전체	시·군·구	읍·면·동
복지분야 사각지대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없음	0.7	1.3	0.0
	조금 있음	56.0	59.7	60.5
	많음	40.1	37.7	37.0
	매우 많음	3.1	1.3	2.5
계		100.0	100.0	100.0

출처: 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보장 분야 사각지대 축소와 부정적 지출 관리 방안 연구」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가장 심한 사회보장제도로 공공부조 제도가 꼽혔으며 대표적 공공부조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표 2-2>와 같이 ‘생계급여(49%)’의 사각지대 문제가 가장 심각한 급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주거급여(25.7%)’, ‘의료급여(21.4%)’ 순으로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응답하였다(임완섭, 2018).

<표 2-2>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서 사각지대 문제가 가장 심각한 급여

(단위: %)

구분	전체	시·군·구	읍·면·동
생계급여	49.0	53.0	46.5
의료급여	21.4	22.7	26.5
주거급여	25.7	22.0	22.0
교육급여	3.9	2.3	5.0
계	100.0	100.0	100.0

출처: 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보장 분야 사각지대 축소와 부적정 지출 관리 방안 연구」

<표 2-3>의 복지제도 전반의 사각지대 발생 이유로는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아서(45.7%)’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선별적 적용으로 인한 구조적 배제(36.4%)’, ‘대상자의 욕구와 비교해 복지서비스나 급여 수준이 낮아서(15.7%)’ 등 순이었다. 지자체 복지담당자들은 사각지대 발생 1순위 사유로는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아서(45.7%)’라고 응답했다.

<표 2-3> 사각지대 발생 이유

(단위: %)

구분	전체	시·군·구	읍·면·동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아서	45.7	42.0	46.5
대상자가 신청했어도 관리 및 행정상의 문제(오류 및 과실 등)로 수급받지 못해서	2.1	3.0	1.0
대상자의 욕구에 비해 제공받고 있는 서비스(또는 급여) 수준이 낮아서	15.7	17.3	18.0
제도 설계(제한적 대상, 선별적 적용 범위)의 문제	36.4	37.7	34.5
계	100	100	100

출처: 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보장 분야 사각지대 축소와 부적정 지출 관리 방안 연구」

<표 2-4> 대상자의 비신청 사유로는 ‘대상자가 몰라서(70.9%)’를 가장 많이 들었다. 다음으로는 ‘신청 절차 및 과정이 복잡해서(13.1%)’, ‘선정기준이 엄격해서 신청해도 안 될 것 같아서(8.8%)’, ‘사회적 낙인 우려(3.1%)’, ‘자녀 등 가족 피해 우려(1.9%)’ 등 의견을 제시하였다(연합뉴스, 2019).

<표 2-4> 대상자의 비신청 사유

(단위: %)

구분	전체	시·군·구	읍·면·동
대상자가 몰라서	70.9	70.6	64.5
신청 절차 및 선정 과정이 복잡해서	13.1	12.7	17.2
자녀 등 가족 피해 우려	1.9	3.2	1.1
선정 기준이 엄격해서 신청해도 안 될 것 같아서	8.8	6.3	9.7
사회적 낙인 우려	3.1	4.8	3.2
제공받게 될 서비스 수준이 낮아서	0.9	1.6	1.1
대상자에게 적합한 서비스가 없어서	1.3	0.8	3.2
계	100	100	100

출처: 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보장 분야 사각지대 축소와 부정적 지출 관리 방안 연구」

2018년 보건복지부에서 정리한 「복지 위기 가구 발굴대책」 보고서에서 현행 위기가정 발굴체계에 대하여 <표 2-5>와 같이 설명하였다(민연아, 2020).

<표 2-5> 현행 위기가정의 발굴체계 한계

-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 지역사회 복지협력 체계 부족
-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역별 격차 발생 및 담당 인력 부족
-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입수 정보의 한계 존재
- 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 제도상 한계
- 복지 위기 가구 발굴에 대한 국민적 참여 여건 미흡

출처: 보건복지부(2018), 「복지 위기 가구 발굴대책」 보고서

<표 2-5>와 같은 문제점의 주요 원인을 정리하면 사각지대 관리를 위한 복지급여 수급 대상자 관련 데이터 공유 부족과 정보 수집의 한계 및 행정절차의 복잡함으로 인한 수급 신청 포기 등이다.

2.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

1)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4(교육비 지원), 9(교육비 지원을 위한 자료 등의 수집 등)와 제62조(권한의 위임) 등에 따라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여 지원을 신청한 초·중·고 학생 중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학생에게 시·도 교육청 예산으로 교육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으로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생활수급자, 법정 한 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과 가구의 소득인정액(중위소득)이 시·도 교육청별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을 포함한다.

지원 내용은 4대 교육비인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PC,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한다. 고교 학비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전액 지원하며, 급식비는 학기 중 평일 중식비를 지원한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1인당 연간 60만 원 내외를 지원하며 교육 정보화 지원은 가구당 컴퓨터 1대와 인터넷 통신비를 월 17,600원, 유해 차단 서비스 월 1,650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 기간은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학년도 말까지 지원하고 학년도 말에 신청하여 선정되었을 때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 연도 지원 기준에 해당하면 계속 지원한다(교육부, 2022).

아래의 <표 2-6>은 각 시·도 교육청별 지원 기준을 설명한 표이다.

<표 2-6> 2022년 초·중·고 교육비 지원 기준

시·도 교육청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정보화 지원	
				컴퓨터	인터넷
서울	60%	60%, (학교장)	60%	-	교육, 한 부모, 법정 차상위, 60%, 난민
부산	60%	무상	80%, (학교장 등)	의료	교육, 한 부모, 법정 차상위, 학교장
대구	60%, (학교장)	무상	80%, (학교장 등)	교육	교육, 한 부모, 법정 차상위, 학교장
인천	60%	60%	60%, (학교장)	교육	교육, 한 부모, 법정 차상위, 60%, 난민
광주	무상	무상	80%, (학교장 등)	의료	교육, 한 부모, 법정 차상위
대전	60%, (학교장)	무상	80%, (학교장 등)	의료, 한 부모, 법정 차상위, 난민	교육, 한 부모, 법정 차상위, 난민
울산	60%, (학교장)	135%	80%, (학교장, 다자녀 등)	의료	교육, 한 부모, 법정 차상위
세종	무상	무상	80%, (학교장 등)	-	교육, 한 부모, 법정 차상위, 60%, 난민
경기	60%, (학교장)	60%, (학교장)	70%, (학교장)	의료, 난민	교육, 한 부모, 난민
강원	80%, (학교장)	무상	80%, (학교장 등)	의료, 한 부모	교육, 한 부모, 법정 차상위
충북	무상	52%, (학교장)	80%, (학교장, 다자녀 등)	교육	교육, 한 부모, 법정 차상위
충남	70%, (학교장, 다자녀)	60%, (학교장, 다자녀)	80%, (학교장, 다자녀 등)	의료	교육, 한 부모, 법정 차상위, 난민
전북	68%, (학교장, 다자녀)	무상	80%, (학교장, 다자녀 등)	교육, 한 부모	교육, 한 부모, 법정 차상위, 난민
전남	60%, (학교장)	무상	70%, (학교장, 다자녀 등)	교육, 한 부모, 법정 차상위, 난민	교육, 한 부모, 법정 차상위, 난민
경북	68%, (학교장, 다자녀)	무상	80%, (학교장, 다자녀)	생계	교육, 한 부모, 법정 차상위, 60%
경남	무상	무상	80%, (학교장 등)	-	교육, 한 부모, 법정 차상위
제주	무상	무상	70%, (학교장, 다자녀 등)	교육	교육, 한 부모, 법정 차상위

출처: 교육부(2022) 「2022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신청 안내」

교육비 지원사업의 업무처리는 신청인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이 완료되면 지자체(시군구)에서 소득·재산 조사를 시행하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 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는 조사에서 제외된다. 이 외의 대상자는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시스템(행복e음, 통합조사관리팀)을 통한 공적 자료(금융재산포함)를 조회하며 신청서 및 소득인정액 정보를 사회보장 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교육행정정보

시스템(나이스)으로 전송하여 학교로 정보가 공유된다.

이후 수급자에게 결정 내용을 통지하며 확정된 대상은 교육비 지원을 받게 된다. 교육비 심사에서 탈락한 학생 중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교사(업무 담당자)가 추천할 수 있으며 학교장 추천자로 선정되면 선정된 자에 대한 정보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근거하여 지자체 등에서 복지 대상자 발굴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을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있다. 학교의 학생복지심사위원회 등을 거쳐 대상자 선정과 지원을 하고 있다(교육부, 2022).

2)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는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의 복지 사각지대의 정의와 다르지 않다. 류방란 외(2013)은 교육복지 대상 학생을 사회적 취약 집단으로 규정하고 경제적 요인(빈곤 등), 사회, 문화, 지역적 요인(이주민, 농산어촌 지역 거주 등), 건강상의 요인(장애, 불안 등)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은 집단이라고 하였다.

사회적 취약 집단에 속하며 교육복지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빈곤 아동 및 저소득층 학생, 도시의 교육 취약 집단 밀집 지역 거주자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탈북청소년, 장애 학생, 농산어촌 학생, 저학력 성인 학생 등이 있다(김경애 외, 2013). 이러한 학교 내 사회적 취약 집단의 대상으로 교육급여¹⁾와 교육비지원²⁾ 대상 학생으로 볼 수 있으며 학교 내 사회적 취약집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대상에는 복지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구 충족에 필요한 적절한 복지급여를 받지 못하는 대상이나 복지 욕구가 있음에도 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급여의 내용이 수급자의 욕구에 부합하지 않는 등의 경우로 볼 수 있다.

2021년 6월 울산 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희귀병으로 투병 중인 2명의 학생을 위해 성금을 모아 전달하였다. 학생의 병마로 보호자는 병간호를 위해 생업을 중단해야 했고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이 넘게 들어갈 치료비로 집을 팔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때 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12조에 근거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로 국가의 의지출 즉 권리성 급여에 해당하며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이 공동 주관하는 제도에 해당한다. 중위소득 50% 이하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한다(교육부, 2022).

2)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4부터 10에 근거하는 시·교육청의 재량적 예산사업으로 교육청 예산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성격을 갖는다. 재량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 역시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나 통상적으로 중위소득 80%이하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즉 교육급여 수급자도 포함될 수 있다(교육부, 2022).

육복지사들은 위기가정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모금회,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두 아이의 수술비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었다(울산제일일보, 2021). 위의 사례에서 학생의 가정은 중산층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생활하다가 갑작스럽게 가정의 위기가 발생하게 되었다. 법정 대상 학생 외에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을 학교 내의 복지전문가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이인숙(2018)의 연구에 따르면 학교 내 학생들의 문제가 학업, 심리·정서, 학교 부적응 등 다양한데도 경제적 어려움을 가진 학생에 50% 이상 서비스가 집중되어 있었고 건강 보건, 사례관리, 부모교육, 가족 활동 지원과 같은 서비스영역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학교에서는 별다른 지원 활동이 없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등교하지 않는 날이 늘면서 학교 내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을 구제할 학교·사회 협력 대응체계가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교육복지 전문가들은 학교 내에서 취약계층 학생을 지원할 전문 인력의 부재를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다. 중앙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국 1만 1,675개 초·중·고교 가운데 교육복지가 배치된 학교는 1,514개교로 전체 중 13%에 불과했다(매일경제, 2020).

제3절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1. 교육복지 개념

교육복지라는 단어가 1992년 대통령 교육정책 자문위원회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1995년 5월 모든 국민이 자아실현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교육복지 국가를 지향한다고 밝힌 교육개혁안에서 교육복지 국가(Edutopia)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교육복지란 교육 현장에 복지의 개념을 더하여, 모든 학생의 기초교육을 보장해 주고, 특히 교육 취약 집단의 교육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교육복지 정책은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책으로, 모든 국민이 주체적 능력 개발을 최대화하여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사회통합 및 국가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펼치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의 총체를 의미한다(한국교육개발원, 2010). 교육복지는 교육과 복

지 또는 사회복지의 의미가 합쳐진 합성어로 학자마다 학문적인 배경과 관점 견해에 따라 다양하게 교육복지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이상오(2000)는 교육복지가 교육의 본질적인 기능을 달성하게 하려면 교육에 복지가 내재하여 있다고 보는 교육 중심 관점의 입장과 교육이 복지실현을 위한 중요한 방법론으로 복지라는 넓은 개념에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복지 중심 관점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교육 중심 관점에서 교육복지의 정의는 복지적 교육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노력하며, 의미 있는 학습경험을 통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추고, 삶의 질을 높여 교육소의 현상을 극복하는 것이다. 또한, 학령기 대상으로 교육 취약계층에 가중치를 두어 공교육 체제하에서 학생의 결핍된 교육 소외를 해소하고 나아가 성장과 잠재능력을 끌어내기 위한 총체적인 노력으로 정의하였다(한유경, 2013).

한명복(2014)은 교육복지 개념을 학교가 중심이 되어 교육 취약 집단에 대하여 교육적 차를 해소하고 학교, 생활 적응력을 도와주는 교육 활동의 하나로 정의하고, 교육 취약 집단은 가정의 교육 취약성과 교육지원, 학교 교육 취약성을 가진 집단을 의미하고, 학교 생활 적응은 학교생활과 관련된 출결, 학업성적 등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교육 중심 관점에서의 교육복지는 교육을 토대로 복지를 주장하는데, 교육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교육의 성과를 달성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각종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교육복지의 복지적 수단을 통해 적절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교육여건을 확보하는 것을 교육복지라고 본다(문경민, 2015).

반면, 복지 중심 관점에서의 교육복지는 개인적, 가정적, 지역적 사회 및 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교육 소외 및 교육 불평등 현상들을 해소하고 전 국민이 높은 교육의 질적 수준을 누리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국민 삶의 질을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 국가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펼치는 교육 현장에서의 다양한 노력의 총체라고 정의한다(윤철수, 2005).

또한 홍봉선(2004)은 교육복지 영역은 학교를 넘어 사회 전체의 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관련 서비스로, 전문적인 활동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교육의 범위를 전체로 확대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한 분야로서 교육복지를 정의한다.

김정원 외(2008)는 교육복지는 교육 취약 집단들이 교육의 기회, 과정, 결과 등 제반 교육의 장에서 제외되지 않고 다른 집단과 적극적인 상호 관계를 형성하는 가운데 이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 기회를 얻으며, 그 기회 속에서 자신들에게 의미 있는 학습경험을

할 수 있고, 학습한 결과에 따라 한 사회의 주체적 성원을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적 자원으로, 계층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는 사회적 배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교육복지를 정의한다.

김신영(2011)은 교육복지는 학령기 아동이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교육받는데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아동이 사회의 구성원을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통합서비스라고 교육복지를 정의한다.

교육복지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지만, 교육복지 개념에 대한 공통된 정의는 교육복지는 학교 체계 속에서 학교가 중심이 되어 취약계층 청소년의 행복한 삶의 유지 및 동등한 출발점을 제공하고 환경, 문화생활 등의 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복지제도라 정의할 수 있다(김명숙, 2021). 2004년 교육복지종합계획에 따르면 교육복지의 영역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영역별로 목적과 목표를 제시하였다.

첫째, 국민 최저 교육 수준 보장으로 장애 및 건강 장애 학생, 저소득층 학생, 저학력 성인, 외국인 근로자 자녀, 기초학력 미달자를 대상으로 모든 국민의 교육 기회 보장 및 기초학력 성취를 목적으로 한다.

둘째, 교육 부적응 및 불평등 해소로써 학업 부적응자 및 학업 중단자, 귀국 학생, 북한 이탈 청소년의 학교 부적응 예방 및 치유, 도시 저소득 지역 및 농어촌 지역 학생, 정보화 격차, 사교육으로 인한 불평등을 겪는 학생들의 교육여건 불평등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셋째, 복지 친화적 교육환경을 조성으로 비 복지적 학교 풍토, 비교육적·비위생적 학교 내·외 환경, 취약한 학생 보건 등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밝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안병렬, 2009).

우리나라의 교육복지 실천은 사업의 영역과 주체에 따라 다양하게 시행되었으며 <표 2-7>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표 2-7> 우리나라 교육복지 실천 현황

지원영역	사업 주체	사업명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지원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유아와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사업 특수교육지원
	보건복지부	드림스타트
	자치단체 · 한국복지재단 · 중앙일보	We start
학교 부적응 지원 및 교육복지증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학교 사회복지사업
	자치단체(과천, 성남, 용인)	학교 사회복지사업
	교육과학기술부	We project(학생 생활지원단)
	보건복지가족부	찾아가는 학교 상담 서비스
방과 후 보육 및 방과 후 활동 지원	보건복지가족부	지역아동센터 사업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사업 청소년 공부방 사업
	여성부	방과 후 보육사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지원
다문화가정 자녀지원	교육과학기술부	다문화가정자녀 교육지원사업
	보건복지가족부	무지개청소년센터 사업

출처:정연정(2010),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의 서비스 이용 결정요인 연구」

학교 현장을 기반으로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교육복지 실천은 대표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과 보건복지부의 드림스타트와 민·관 협력을 통한 we start 사업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회복지단체에서 운영하는 학 교사회 복지사업 등이 있다(정연정 2010).

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개념

우리 사회는 급격한 경제적 발전과 현대화, 도시화의 변화를 겪으면서 사회 각 계층의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사회적 양극화를 가져왔다. 이런 갑작스러운 사회적 변화는 가정의 교육적 역할도 약화해 상대적으로 학생 교육에 대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역할을 증대하도록 만들었다. 따라서 교육 성취에 집중되어 있던 기존의 학교의 역할을 돌봄과 복지 영역으로 그 범위를 넓혀 나가야 한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이런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말이 이제 더는 유효한 말이 되지 않는 사회에서 교육복지우선지

원사업은 교육과 문화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교육 및 문화적 기회와 불평등을 완화하여 학생들의 출발점 기반을 동등하게 해줌으로써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도록 등장하였다(한국교육개발원, 2017).

허지선(2020)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교육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지역공동체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맞춤형, 통합적 지원을 제공하여 이를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정의하였다.

한양대학교 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학교가 중심이 되는 교육복지공동체 구축을 통해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건·복지 등의 지원시스템을 마련하여 취약 가정 학생의 교육,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정의한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나 교육복지 혜택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밀집 지역에 있는 학교를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간, 계층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생, 학교, 지역의 변화를 꾀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정의한다(이경만, 2017).

정종삼(2019)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저소득층 가정 등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이 많은 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을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교육, 복지, 문화 수준을 총체적으로 높여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복지 등의 영역에서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정의한다.

정동철(2016)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교육의 기회, 과정, 결과 측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는 아동·청소년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극복하여 독립적이며 자율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학교-지역사회 간의 상호협력 체계 구축을 핵심으로 삼고, 교육을 통한 사회 평등을 위해 아동·학생·청소년의 초기 사회화 과정에 국가와 지역사회, 학교가 연계하여 개입함으로써 적극적인 보상적 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이라고 정의한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기존의 교육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한 지원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으로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통합지원체제를 구축하여 특히 관심과 지원해야 하는 집단을 발굴하고 이들의 욕구를 파악하여 각종 프로그램과 연결하거나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교육 취약계층 학생들의 교육적 성취를 도모함으로써,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과거의 공적 부조 차원의 지원에서 나아가 학생들의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김정원 외, 2009).

3.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체계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는 계층 간의 소득 격차 심화, 중산층 감소와 더불어 빈곤층 확대,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도시 저소득층 확대, 다문화가정, 북한 이탈 주민, 외국인 근로자 가정이 증가하면서 신 취약계층이 발생하고 취약계층이 확대되었다. 또한, 소득과 학력에 따라 지역 내 거주지 분화 현상, 가정기능의 약화 등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같은 지역 내에서도 취약계층이 밀집된 지역과 학교는 계층 분화 현상이 지속하고, 학생의 교육적 성취에 대한 가정 배경의 영향력이 높아졌다.

소득 계층 간, 지역 간의 사회 양극화로 인한 사회통합 저해와 지역 간, 계층 간 경제적 차이로 인한 교육 불평등, 교육 소외 학생 문제의 심각성, 교육 소외 학생에 대한 사회적 지원 필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가정환경과 상관없이 누구나 교육적 경험을 통해 자기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적 자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공식자원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 정부는 2002년 인적자원개발 회의에서 관계부처와 민간단체가 참여하여 교육·문화·복지가 연계된 교육복지 대책을 수립하였고,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등 7개 부처는 2002년 8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의 계획을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중앙준비 기획단을 발족하였다(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4).

정부는 2003~2004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을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인 서울과 부산을 시작으로 서울시 6개 지역, 부산시 2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시범사업 기관은 초·중학교 45개교, 유치원 34개로 총 79개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시범사업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2005년 수도권과 인구 50만 이상의 광역시로 이 사업을 확대하였다. 2006년에는 시·도 교육청별로 사업지역을 1개씩 선정하여 참여함으로써 사업지역이 30개로 더 확대되었다.

그동안의 사업성과와 사업평가를 통해 2008년 12월 사업의 확대를 결정하고 2009년~2010년까지 사업이 대상자 조건을 확대함으로써 단계적으로 모든 시·도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을 확대해 시행하였다(권영숙, 2020).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와 더불어 2011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개정방안을 발표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교부기준을 명시하는 등 법적 기반을 갖추고 사업의 안정적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개정방안에서 가장 큰 변화는 사업의 명칭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변경하고 사업의 형태가 지역 단위에서 학교 단위로 바뀌면서 도시 지역에 국한되었던 사업 대상이 전국의 초·중학교로 확대되었다. 또한, 사업비를 특별교부금에서 보통 교부금으로 전환되고,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으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면서 시·도 교육청 자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속적인 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이진구, 2020).

2011년부터 시·도 교육청에서 학교에 일정 규모 이상의 기초생활 수급 가정 학생 수, 기타 취약계층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를 선정·지원이 이루어졌다. 2017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 학교는 전국적으로 3,301교로 서울 951교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 학교수가 가장 많고, 부산 351교, 대구 334교이며, 전체 대상 학교 수위 비율은 초등학교 54.4%, 중학교 39.1%, 고등학교 6.4%이며 2014년 1,828교에서 2017년 3,301교 2배 정도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2017년 3월 ‘경제·사회 양극화에 대응하는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 발표 이후 교육복지종합지원사업 재구성의 목적으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한 국가 시책사업이 신설되었고, 2014년까지 한국교육개발원(KEDI)에서 운영하고 폐지되었던 중앙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가 한양대학교 교육복지 중점연구소에 재설치되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지방 이향 이후 발생한 시·도 간의 교육복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재개했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황진, 2020).

2019년 기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실시하는 학교는 3,596교이며, 서울지역 유치원 65개 등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총 3,661교, 대상 학생 수는 333,983명이다. 또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운영하는 학교는 사업 전문 인력이 배치된 거점형과 배치되지 않은 연계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거점형 학교는 전국 1,541교, 연계형 학교는 1,999교이다.

대전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2005년 대전의 대동 관암지역을 시작으로 2006년에는 삼천-월평지역으로, 2007년에는 대덕구 지역과 중구지역으로 확대하여 총 35개(초등 16개교, 중등 19개교)교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및 교육복지프로그램이 실시·운영하였다.

2014년에는 교육복지 대상 학교에 교육복지사를 배치하여 교육복지사업의 5개 영역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35개교와 교사를 중심으로 학습영역의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

하는 연계 학교 21개교를 운영하였다. 이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확대로 연계 학교를 희망학교와 희망교실로, 사업학교를 중점학교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22년 현재 사업의 전담 인력이 배치된 중점학교는 총 61교이며 미배치된 희망학교 & 희망교실은 83교이다. 또한, 대전 동구 지역 교육 취약 학생 발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복지안전망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중학교는 239교이다. 대전지역 사업 유형별 학교 수는 < 표 2-8 >와 같다.

<표 2-8> 대전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현황(초·중·고)

구분	초		중		고	계
	동부	서부	동부	서부		
중점학교	22	13	17	4	5	61
희망학교 & 희망교실	15	10	15	23	20	83
교육복지 안전망 동구센터	14	-	-	-	-	14

출처:대전시교육청(2022), 「따라 하기 쉬운 2022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매뉴얼」 p.3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의 지정기준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기준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법정 저소득 가정 학생 수(비율)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공통으로 볼 수 있다(권영숙, 2020).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교육 취약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총체적으로 지원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영역에서의 지원 프로그램을 포괄하는데, 사업의 주요 영역을 학습·문화·심리, 정서·복지 등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사업 운영한다.

학습영역은 교육 취약 학생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함으로써 학습 동기 유발 및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개발하여 학습결손을 방지한다. 또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다양한 진로 탐색 활동을 통해 교육 취약 학생들이 미래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문화영역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교육 취약 학생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 충족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취약 학생뿐만 아닌 지역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전체의 관심과 공동체 의식을 고양에 이바지하고자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를 통해 학생이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한다.

심리·정서 영역은 교육 취약 학생의 심리·정서발달 지원을 통해 학생들에게 긍정적 자아개념, 건강한 사회성 함양을 위해 적절한 자원을 제공하고 학생의 발달단계 및 교육 취약 집단 학생의 특성에 대한 심리·정서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한다.

복지영역은 학생들에게 건강한 신체 발달을 위해 필수적인 복지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밖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에 대해 학교와 지역사회 공동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집중지원 학생을 위한 사례관리를 지원한다. 최근 학생들의 통합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다양한 영역에 걸쳐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학생의 전인적인 발달을 고려한 사례관리의 중요성이 매우 드러나고 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프로그램의 영역별 운영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역별, 대상자별, 단위 사업별로 각 사업학교의 특색과 학생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운영되며 세부 프로그램 명칭과 활동 내용을 학교별로 다양하다.

대전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춤춤한 교육복지 지원으로 취약 학생의 맞춤형 성장지원’이라는 목표 아래 ‘위기 상황에 놓인 복지 사각지대 취약 학생 지원강화’ 그리고 ‘춤춤한 교육복지안전망 구축을 통한 다각적인 지원방안 모색’을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 취약 학생 맞춤형 성장지원 강화, 춤춤한 교육복지안전망 확대, 지역사회 연계 협력 활성화, 사업 추진 주체의 교육복지 역량 강화를 4대 과제로 제시하였다(대전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매뉴얼, 2022, p2).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교육 취약 학생 맞춤형 성장지원을 강화를 위한 중점학교 운영 및 학생 성장 관리 내실화, 희망학교, 희망교실 확대 운영이다. 그밖에 춤춤한 교육복지안전망 확대를 위한 복지 사각지대 교육복지 안전망³⁾ 구축·운영과 교육복지안전망 동구센터 대상 확대 및 내실화 도모, 긴급·위기 지원 꿈 이룸 사제 행복동행⁴⁾ 사업 확대 운영, 지역사회 연계 협력 활성화를 위한 민간자원 유치를 통한 나비프로젝트⁵⁾ 내실화, 지역자원 연계로 학생복지 지원강화, 사업 추진 주체의 교육복지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운영 내실화 지원강화, 교육복지 주체별 핵심역량 제고,

3) 교육복지사 미배치 교 취약계층 학생의 주요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학생과 가정에 맞춤형 교육복지 서비스를 연계(지원)하는 교육복지 통합지원 시스템

4) 제자 사랑 나눔 캠페인을 통해 조성된 재원으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초·중·고 학생에게 수시 긴급 지원으로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총 3억 3천만 원)

5) 학생들이 꿈을 찾고 건강한 자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관의 나눔 자원을 학교와 연결하는 교육복지공동체 구축 프로젝트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강화 등이 있다.

2022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주요 사업 및 예산은 <표 2-9>와 같다.

<표 2-9> 대전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현황

(단위: 천원)

주요 사업	내용	예산
본청(One-Stop 지원센터)	▪ 사업 기획·연구·평가 ▪ 중점학교(61교) 조정 및 지원 ▪ 일반 학교(239교) 교육 취약 학생지원 연계 ▪ 지역 교육공동체 '나비프로젝트' ▪ 사업관계자 연수 운영 및 홍보	171,836
중점학교(61교)	▪ 교육 취약 학생 발굴 및 사례관리 - 맞춤형 교육복지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지원 ▪ 교육복지실 운영 ▪ 지역 교육복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1,203,000
희망학교&희망교실(90교 내외)	▪ 맞춤형 교육복지 프로그램 운영 ▪ 교실형 & 동아리형 사·제 멘토링 운영	340,000
교육복지 안전망(초, 중 239교)	▪ 교육복지안전망 동구센터 - 동구 관내 교육복지사 미배치 초·중학교 - 교육 취약 학생 발굴 및 서비스 지원 ▪ 자치구별 교육복지안전망 - 교육 취약 학생지원을 위한 협력시스템 운영	50,000
계		1,764,836

출처:대전시교육청(2022), 「따라 하기 쉬운 2022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매뉴얼」 p.4

4. 대전광역시 교육비 신청 현황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생 중 교육비 신청 현황은 <표 2-10>과 같다.

<표 2-10> 대전시교육청 초·중·고 교육비 신청 현황

(단위: 명(%))

구분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총계	
	2020	2021	2020	2021	2020	2021	2020	2021	2020	2021	2020	2021
대전광역시 전체 학생 수	16,363 (10.0)	15,817 (9.9)	21,478 (13.2)	21,094 (13.2)	53,636 (32.9)	52,994 (33.1)	44,029 (27.0)	43,689 (27.3)	27,483 (16.9)	26,288 (16.4)	162,989 (100)	159,882 (100)
기초·한부모, 법정차상위	1,681	1,634	2,376	2,380	3,006	2,998	1,607	1,650	2,536	2,379	11,206	11,041
중위소득 60%이내	951	838	1,292	1,064	2,344	1,948	1,122	992	1,419	1,179	7,128	6,021
중위소득 60~80%	264	231	306	314	529	443	234	289	417	351	1,750	1,628
중위소득 82~120% 이하	230	203	302	293	425	378	247	212	324	312	1,528	1,398
중위소득 122~200%	104	91	170	117	219	213	122	122	175	153	790	696
중위소득 200% 초과	41	32	50	40	66	54	43	46	60	38	260	210
교육비 신청 총계	3,271 (14.4)	3,029 (14.4)	4,496 (19.8)	4,208 (20.0)	6,589 (29.1)	6,034 (28.7)	3,375 (14.9)	3,311 (15.8)	4,931 (21.8)	4,412 (21.0)	22,662 (100)	20,994 (100)

출처: 대전시교육청(2020~2021), 「대전교육통계 주요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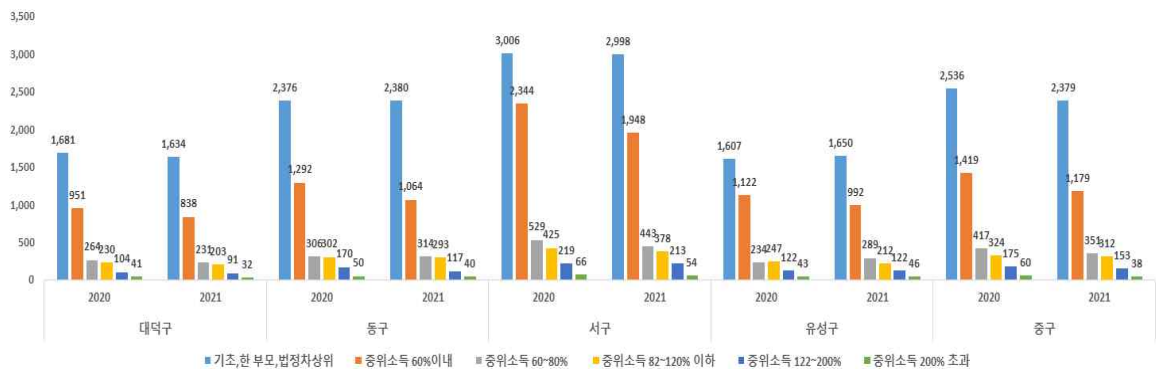
대전시교육청 2020~2021년 대전교육통계 지표를 살펴보면 2020년 대전시에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전체 학생 수는 162,989명이며 5개 자치구 중 서구 학생 수가 가장 많고 그 사람 다음으로 유성구, 중구, 동구, 대덕구 순으로 나타났다. 그중 2020년 교육비를 신청한 학생은 22,662명으로 대전시 전체 학생의 13.9%로 나타났다. 2021년 대전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전체 학생 수는 159,882명이며 2020년과 마찬가지로 5개 자치구 중 서구에 학생 수가 가장 많고, 유성구, 중구, 동구, 대덕구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 비해 2021년은 자치구별 학생 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동구는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중 2021년 교육비를 신청한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은 20,994명으로 전체 학생의 13.1%가 교육비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과 2021년 대전지역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수는 3,107명이 감소했지만, 교육비 신청 비율은 큰 변화가 없었다.

2020~2021년 지역구별 교육비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2-1]과 같다.

[그림 2-1] 대전시교육청 초·중·고 교육비 신청

(단위: 명)



2020~2021년 교육비 신청 학생은 5개 자치구 중 서구지역이 가장 많고, 중구, 동구, 유성구, 대덕구 순으로 나타났다. 중구(26,283명)는 5개 자치구 중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수가 서구(52,994명)와 유성구(43,689명) 다음으로 학생 수가 많았지만, 교육비 신청 학생(4,412명)은 유성구(3,311명)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2021년 대전시교육청 초·중·고 교육비 신청 현황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사업학교와 비사업 학교와 비교한 자료는 <표 2-11>과 같다.

<표 2-11> 교육비 신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사업학교 및 비 사업 학교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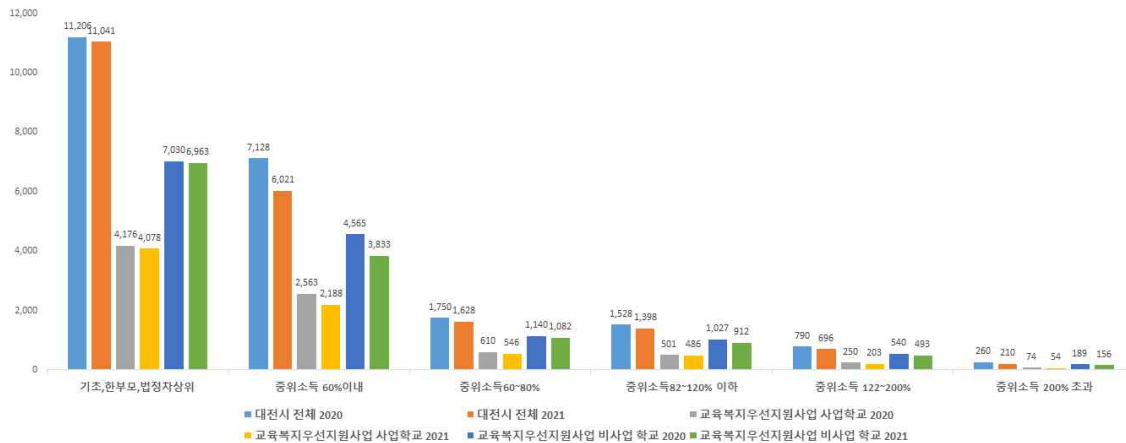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대전광역시시 초·중·고 전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사업학교(초·중·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비사업 학교(초·중·고)	
	2020	2021	2020	2021	2020	2021
기초, 한 부모, 법정 차상위	11,206	11,041	4,176 (37.3)	4,078 (36.9)	7,030 (62.7)	6,963 (63.1)
중위소득 60%이내	7,128	6,021	2,563 (36.0)	2,188 (36.3)	4,565 (64.0)	3,833 (63.7)
중위소득 60~80%	1,750	1,628	610 (34.9)	546 (33.5)	1,140 (65.1)	1,082 (66.5)
중위소득 82~120% 이하	1,528	1,398	501 (32.8)	486 (34.8)	1,027 (67.2)	912 (65.2)
중위소득 122~200%	790	696	250 (31.6)	203 (29.2)	540 (68.4)	493 (70.5)
중위소득 200% 초과	260	210	71 (27.3)	54 (25.7)	189 (72.7)	156 (74.3)
교육비 신청 학생 총계	22,662 (100)	20,994 (100)	8,174 (36.1)	7,555 (36.0)	14,491 (63.9)	13,439 (64.0)

출처: 대전시교육청(2021)

[그림 2-2] 교육비 신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사업학교 및 비 사업학교 비교

(단위: 명)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자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중점학교와 비사업 학교로 구분한 자료를 살펴보면, 대전시 전체를 보았을 때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중점학교에서 교육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은 학생은 대략 33%로 알 수 있다.

이 중 교육비 지원 신청자 중 중위소득 64% 이내의 학생에게 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교육복지사업학교에서 교육비 지원을 받은 학생은 약 36.7%의 학생이 교육비 지원을 받았고 63.3%의 학생들은 비사업 학교 대상 학생이었다.

복지 사각지대의 규모를 추정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로 실제 수급 여부와 소득과 재산 규모 등의 을 알아야만 하며 빈곤선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빈곤을 상대적 빈곤으로 볼 것인지, 절대적 빈곤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다양한 변수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위의 분석 자료는 대전 시내 재학 중인 학생 중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학생에 대한 통계자료로 교육비 지원신청을 하지 않거나 못한 가정이 있다고 보며 매우 부분적이며 한계가 뚜렷하여 정확한 복지 사각지대를 추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개념을 지원이 필요함에도 기준에 미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가정으로 봤을 때 우리가 현재 대전시 재학 중인 학생 중 복지 사각지대로 추정할 수 있는 범위는 교육비 지원 범위를 초과한 학생들로 중위소득 60~80% 이내의 학생들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범위를 설정한 이유는 2020년 대전시교육청의 교육비 지원 기준은 64%였으며 2022년도 교육비 지원 기준은 80%로 조정되었다. 그런 이유로 지원이 필요하나 지원받지

못하는 대상으로 중위소득 기준 60~80%에 속하는 학생과 지원이 필요하나 소득 수준 조사에서 탈락한 중위소득 80%~120% 이내의 학생을 복지 사각지대로 추정하였다. 이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중점사업 학교에서 중위소득 60~120% 이내의 학생은 대전시 전체에 약 34%이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은 비사업 학교 학생은 약 66%라고 볼 수 있다. 복지 사각지대로 추정 가능한 범위의 학생들은 대전시교육청 교육비 지원 신청자를 놓고 볼 때 약 3,200여 명 정도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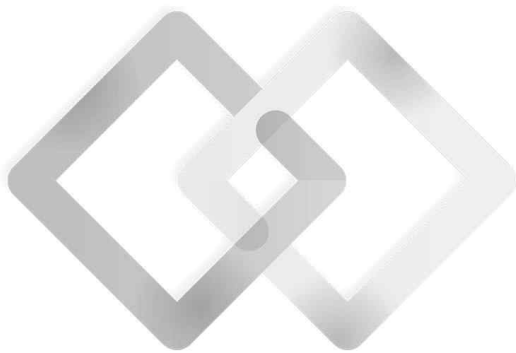
다만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중점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교육비지원(방과후 자유수강권, 현장 체험비 지원 등)외에 학교 안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 받고 있으며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사례관리 서비스로 맞춤형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비사업 학교에 있는 약 66%의 학생들은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로 적극적인 발굴로 지원하지 않는 이상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 그 어떤 사회복지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2022년
참여형 현장연구
지원사업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질적 연구



제3장 연구방법



제3장 연구 방법

1. 질적 연구 방법의 적용

본 연구의 목적은 초점집단인터뷰(FGI)를 통해 저소득 학생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되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학교 내에서 복지 사각지대 개념 및 현황을 파악하고,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따라서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는 어떠한가?’와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변화와 제언은 무엇인가?’를 주요 연구 문제로 설정하고, 교육복지사의 경험과 복지 사각지대 지원방안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초점집단인터뷰(FGI)는 질적 연구의 자료수집 방법의 하나로 연구자가 특정 연구 주제에 대하여 그 집단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를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하여 소집단을 구성하는 연구 방법이다. 이 방법은 사람들의 지식과 경험에 관해 탐구하는 데 유용하며, 사람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 생각하는지,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생각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Rabiee, 2004).

질적 연구로서의 초점집단인터뷰(FGI)를 더욱 광범위한 영역에서 사용하면서 특정한 주제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구조화된 집단 인터뷰로 발전하였는데, 특히 비슷한 경험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표현할 수 있는 평가 연구나 실행 연구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지은혜, 2019). 또한 초점집단인터뷰(FGI)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는 개방형 질문을 통해 만들어지며 그룹에서 참여자들이 다른 참여자에게 영향을 주고 동시에 다른 참여자들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보다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따라서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와 함께 일하는 교육복지사들의 경험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의 복지 사각지대를 이해하고,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를 위한 지원 방안을 찾아내고자 하는 목적으로 초점집단인터뷰(FGI)가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초점집단 인터뷰(FGI) 접근 방법을 활용하였다. 또한, 교육복지사 집단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관련 기관 현장 실무자가 경험한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좀 더 다양한 내용구성과 대안 모색에서 중요한 함의를 더 잘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2. 연구참여자 선정

본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들의 선정은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대상을 의도적 표집 방법과 이후 인터뷰 참여자에게 적합한 대상을 추천받는 눈덩이 표집 방법을 병행하였다. 연구자는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육복지사들과 FGI를 구성함으로써 참여자에게 발언의 기회가 골고루 돌아가고 특정인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연구 참여 집단을 구성하였다.

또한, 지원방안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민간기관 실무자를 추천받아 인터뷰를 실하여 교육복지사 집단 1개, 실무자 집단 1개 총 8의 교육복지사와 3명의 사회복지사로부터 자료를 수집했는데, 연구참여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3-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참여자	연령	성별	소속
그룹1 (1차 초점집단인터뷰)	교육복지사1	40대	남	중학교
	교육복지사2	40대	여	초등학교
	교육복지사3	40대	여	초등학교
	교육복지사4	50대	여	초등학교
	교육복지사5	40대	여	대전시교육청
	교육복지사6	40대	여	초등학교
	교육복지사7	30대	여	중학교
	교육복지사8	50대	여	초등학교
그룹2 (2차 개별심층 인터뷰)	실무자1	30대	여	종합복지관
	실무자2	40대	남	사회복지법인
	실무자3	30대	여	종합복지관

3. 자료수집 방법

초점집단 인터뷰는 2022년 7월, 8월 대전시교육청에서 진행되었으며, 각각 2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 연구진 중 1명이 주 진행자로 참여해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연구자의 개입은 최소화하였다.

자료는 현장에서 연구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어 모두 녹취되었으며, 인터뷰 녹취록은 연구 목적 외에 쓰이지 않겠다는 것과 고유한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에 대한 동의서를 서면

으로 받고 약속하였다. 초점집단인터뷰 내용은 모두 녹음 후 필사하여 원 자료화했으며, 연구참여자별 주요 인터뷰 질문은 다음과 같이 반 구조화되고 개방적인 질문을 포함하였다.

〈표 3-2〉 주요 인터뷰 내용

면접 대상	주요 내용(반구조화 면담)	
	내용	세부 내용
교육복지사 민간기관 실무자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의 대상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 발생 이유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와 일하며 겪는 어려움
		학교와 지역사회에서의 복지 사각지대의 차이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 해결 방안	학교 현장에서 바라는 변화
		지역사회에서 바라는 변화
		제도적 변화

4. 자료수집분석

본 연구는 교육복지사와 민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면담의 녹취 원자료를 바탕으로 코딩하고 범주화 분석을 하였다. 인터뷰 원자료를 읽으면서 조사영역별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 어구, 어절, 문장, 문단 등을 파악하고 이를 의미 단위의 형태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각 의미 단위를 포괄하는 핵심개념을 도출하고 다시 유사한 의미가 있는 핵심개념들은 소범주 중에서 유사하거나 의미상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현상들은 다시 중범주로 이름을 붙여 묶었으며, 이처럼 통합된 범주에 적합한 이름을 붙이는 범주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 그 결과, 연구영역별 범주 및 각 의미 단위들이 구성되었고 이를 영역별로 제시하였다.

5. 연구의 엄격성

본 연구에는 결과와 해석을 신뢰할 수 있도록 연구의 엄격성을 지키고, 연구의 질을

검증하고자 동료 지지집단의 검토를 거쳤다. 동료 지지집단인 공동연구자들은 함께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고 자료 해석, 결과분석 등 연구 회의를 통해 의견을 나누었다. 연구자들은 격주 1회 이상의 회의를 두며 면담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주제로 토의하는 시간을 갖고 주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관점에서 비교분석 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연구 결과의 신뢰성과 확증성을 높이기 위해서 초점집단참여자들과 비공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녹취록 원자료를 공개하고 이들에게 검토받는 방식을 선택해 연구 결과를 구성하였다.

6. 연구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연구자는 참여자로부터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먼저 인터뷰를 시행하기 전에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참여자 동의서를 받았다. 인터뷰에 앞서 연구자들의 소속과 연락처를 연구참여자들에게 알렸고, 연구동의서에도 연구의 목적, 연구자 소개, 인터뷰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 자료수집의 동의, 비밀 유지의 약속, 인터뷰 녹음 등에 관한 내용을 문서와 구두를 통해 설명했다.

이 모든 것에 동의하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고, 한 부는 연구참여자 본인이 갖도록 하였다. 초점집단인터뷰를 진행할 때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취재나 심문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전문가의 경험을 존중하는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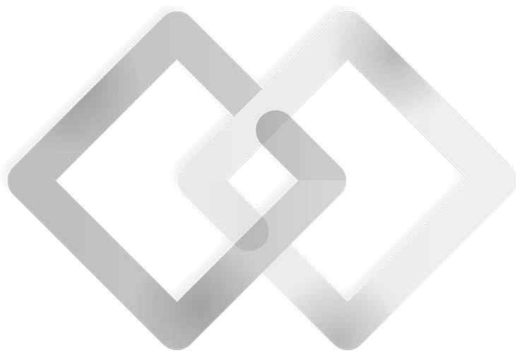
또한, 참여자 중 어느 한 명에게 발언권이 넘어가지 않도록 유의하며 질문을 이어갔다. 연구참여자가 자기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비밀요지 약속을 하였고 연구에서 연구참여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이름이나 지역, 기관 등의 정보를 기호와 했다. 인터뷰를 종료한 후에는 인터뷰에 참여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사례를 하였다.

2022년
참여형 현장연구
지원사업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질적 연구**



제4장 연구결과



제4장 연구결과

본 연구는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개념과 대상, 그리고 학교와 지역사회에서의 복지 사각지대 대상의 차이와 복지 사각지대 해결 방안에 관한 반 구조화된 질문을 학교 내 교육복지사 10명과 초점집단면접과 지역기관의 실무자 3명과 1:1 심층 면접한 내용을 분석,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질적 자료 분석 방법으로 범주화 분석(Domain Analysis)을 선택하였다. 먼저 개방형 코딩방식으로 녹취 원자료를 읽으며 조사영역별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 어구, 어절, 문장 등을 파악하여 여기서 의미 단어들을 추출하였다. 이 핵심 의미 단어들을 다시 유사한 의미가 있는 소범주로 묶어 하위 범주를 구성하였고, 다시 유사한 의미가 있는 하위 범주들을 중범주로 묶어 상위범주로 통합하는 범주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로 아래와 같이 연구영역별 범주로 분석하였다.

제1절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분석

본 연구는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를 경험한 교육복지사와 유관기관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학교 현장에서 생각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의미와 복지 사각지대 지원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학교 현장 및 지역사회기관에서 복지 사각지대 아동과 일해온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초점 집단면접(FGI)과 심층 면접에서는 다양한 현장의 사례들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 대상에 대한 실무자들의 개념,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의 발생 이유,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 대상과 일하며 겪는 어려움, 학교와 지역사회에서의 복지 사각지대의 차이, 복지 사각지대 해결 방안에 대한 제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 ‘복지 사각지대 해결 방안’ 등 2가지의 대범주가 도출되었고,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 아래에는 1)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 아래에는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 대상, 2)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 발생 이유, 3)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와 일하며 겪는 어려움, 4) 학교와 지역사회에서의 복지 사각지대의 차이에 대한 4개의 중범주가 포함되었다.

‘복지 사각지대 해결 방안’의 대범주 아래에는 1) 학교에서 바라는 변화 2) 지역사회에서 바라는 변화, 3) 제도적 변화의 3개의 중범주로 분류되었다. 각 중범주에서 다시 3가지에서 7가지까지의 하위 범주들이 추가로 분류되었는데 교육복지사 초점 집단면접 내용과 유관기관 사회복지사의 심층 면접에 대한 내용 분석 결과는 <표 4-1>과 같다.

<표 4-1> 영역분석 및 주요 범주

대범주	중범주	하위 범주	비고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 대상	① 소득에 들어오지 못하는 아이들 (교육비 선정기준에 탈락한 학생)	
		② 학교 부적응(또래 관계의 어려움, 심리·정서적인 어려움)	
		③ 돌봄의 결핍	
		④ 다양한 서비스 사이에서 제외된 아이들	
		⑤ 학교 밖 학생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 발생 이유	① 아동 또는 보호자의 서비스 거부	
		② 정서적 방임	
		③ 교육비 선정탈락	
		④ 절차의 어려움	
		⑤ 발견은 쉽지만 도움의 한계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와 일하며 겪는 어려움	① 문제 유형의 다양성 (폭넓은 대상자로 인한 복지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대처의 어려움-차이점)	
		② 결재권자의 인정받지 못해 실행하지 못한 경우	
		③ 업무의 경계에 끼인 경우	
		④ 보호자의 태도(보호자가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 주 양육자의 부재)	
		⑤ 무기력한 아이들(무동기)	
		⑥ 서비스 거부 아동(자기 결정권) 클라이언트와 보호자의 의지 부족에 의한 참여 여부 결정	
		⑦ 가정환경 개입의 어려움 및 사후관리의 부족	
	학교와 지역사회에서의 복지 사각지대 차이	① 제도 안에 있어도 맞춤형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대상	
		② 다문화 형태의 복지 사각지대	
		③ 인적자원 활용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복지 사각지대 해결 방안	학교에서 바라는 변화	③ 현장이 가진 물리적 특성 (개입 기한의 제한, 프로그램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아동 발견)	
		① 학교 내 인력풀 시스템 마련(인력확충, 1교 1 교육복지사 배치)	
		② 학교 역할의 재정립(학생의 안전한 삶 보장, 서비스 개입의 당위성)	
		③ 교직원의 인식개선(감수성 향상)	
		④ 교육복지 서비스의 선택과 집중	
	지역사회에서 바라는 변화	⑤ 학교 내 통합적인 시스템 마련	
		① 균등한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의 배치	
		② 학교와의 정보 공유(네트워크 시스템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③ 대상 선정기준 확대	
	제도적 변화	④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 지역사회 내 복지 사각지대 아이들을 위한 지원시스템 마련	
		① 보편적 서비스로의 지향, 선택적 복지서비스의 탈피	
		② 법, 제도 안에서 뭔가 우리들의 포지션을 잘 이끌 수 있는 제도적 강화	
		③ 동의 절차의 간소화	

1.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

우선 첫 번째 대범주인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는 4개의 중범주로 교육복지사와 유관기관 사회복지사가 생각하는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 대상,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 발생 이유,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 대상과 일하며 겪는 어려움, 학교와 지역사회에서의 복지 사각지대 차이점이다.

1)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 대상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 대상으로는 소득에 들어오지 못하는 아이들로 교육비 선정기준에서 탈락한 학생들, 학교 부적응(또래 관계의 어려움,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 돌봄의 결핍, 서비스 전달체계가 미치지 못하는 아이들, 학교 밖 학생이 있었다.

(1) 소득에 들어오지 못하는 아이들(교육비 선정기준에 탈락한 학생)

제도나 법의 기준에 의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또는 받더라도 전문가의 관리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마찬가지로 학교 현장에서의 복지 사각지대도 같이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는 교육비나 교육급여에 의해서 이제 아이들을 선별하게 되잖아요.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대상으로 지원받아도 교사나 아니면 학교에 있는 이런 전문가들의 관리를 받지 못하면은 복지 사각지대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교육복지사 1)

학교 같은 경우도, 우리가 교육복지사니까 복지 사각지대라고 했을 때, 어쨌든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이들은 교육비에 근거한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교육비 신청한 아이들을 일단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려운 형편이라고 하고 복지가 필요한 대상일 거라고 예측을 하고 지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교육비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교육비를 신청했음에도 뭐지 잘 지원을 못 받는 가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복지사 2)

우리 학교 같은 경우도 학생이 제가 3월에 왔을 때 계속 방과 후 수강비를 못 내는 거예요. 미납된 29만 얼마를 계속 못 냈는데 이 집은 엄마, 아빠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가정이었고 엄마가 이 지역에서 소문난 알코올 중독 엄마인 거예요. 그런데 계속 미납이 됐는데 이 소득이 300%가 나오는 거예요.... (중략).... 아빠가 수입이 몇천만 원이 아니라 아빠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다가

이걸 또 다 나눠주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정말 실질적으로 받는 거는 큰 금액이 아닌데 이것 때문에 아무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애는 또 담임 추천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증빙 서류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도와주고 싶어서 여기저기 기관에 알아봤는데 소득이 300%이니 어려운 거예요. (제도적 사각지대 대상 사례 1)

(2) 학교 부적응(또래 관계의 어려움, 심리·정서적인 어려움)

사실 학교는 교육복지사업이라는 범주 안에서 소득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 1, 2, 3차로 되어 있고, 물론 별도 3차라는 학교장 추천이라는 어떤 그 틀로 가지고 좀 더 대상 확대 해주기는 하지만 사실 이제 여기도 소득을 가지고 대상을 선정하는 건데 사실, 학교에서 느꼈을 때 사각지대는 위기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래 관계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되게 많고 왜냐하면 심리·정서적인 문제를 갖고 심리적 어려움이 있고 또 요즘 학폭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사실은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학교 밖 학생들이 될 수도 있고, 사실은 이런 다양한 위치의 학생들을 저는 조금 사각지대 학생 그래서... (중략)... 그런데 사실은 그 아이들이 느껴지는 실질적으로 개입해줘야 할 부분들이 아주 많고, 더군다나 우리 사업의 성격이나 특성들을 고려했을 때는 충분히 개입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은데, 소득의 범주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어떠한 다양한 애가 학생으로서 생활하는 데 매우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런 문제들에 대한 개입들이 전혀 되어질 수 없다. 라는 이 학생들도 사각지대 학생이라고... (교육복지사 3)

(다문화가정) 양부모인데 교육비 대상도 또 안 되고 이런 경우 아이들은 또 한글이나 학습에 계속 어려움도 있어서 또래 관계 따돌림을 당하거나 이제 왕따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또 더 어려운 거는 그런 과정이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랑 소통이 잘 안 돼서 아이를 어떻게 이제 앞으로 해야 할지 자체가 추가로 사후관리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학교 현장에서의 복지 사각지대가 아닐까... (기관실무자 2)

(3) 돌봄의 결핍

제가 느끼기에는 요즘에 이혼 가정도 되게 많고 가정적으로 부부 갈등이나 아니면 그런 이유로 인해서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돌봄을 안 되는 것 같아요. (교육복지사 2)

프로그램 때문에 학교에 아이들을 데리러 간 거예요. 복지관 안에서 프로그램하고 다시 귀가 지원까지 하는 그 과정에 그 방과 후 시간에 고정적으로 특정 친구가 모르는데도 차량 지원을 갈 때마다 운동장에서 그냥 이렇게 혼자 있거나 놀고 있거나 이런 친구들이 보였는데... (중략)... 그

게 특정 친구가 반복적으로 그렇게 방과 후에 혼자 있을 때 우리가 뉴스에서 사실 안 좋은 사건이나 사고들에 대한 소식을 듣다 보니까 저 친구도 사각지대인가 누구도 저 친구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되고 있나 이런 걱정스러운 마음이 좀... (기관실무자 3)

제가 생각하는 복지 사각지대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은 교육복지 대상은 아니지만 어떤 보호자의 생계로 인해서 자녀가 방과 후에 보호를 못 받는 아동이 저는 이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보호자가 이제 생계로 아이가 방과 후 시간에 아이 방임되는 형태 그래서 이런 방임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저녁도 제대로 못 먹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과정 보면 대부분 가정환경이 되게 좋지 못하더라고요. (기관실무자 2)

(4) 다양한 서비스 사이에서 제외된 아이들

두드림이나 위클래스나 해가 지고 여러 가지가 중복되어 받는 아이들은 또 굉장히 많이 받는데 또, 소득 기준에서 벗어나 가지고 관심이 없는 아이들은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학교 안에서 애가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은 그냥 이렇게 넘어간다는 말이죠... (중략)...특히나 학교 부적응 아이, 아니면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학교에서 보일 수 있는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복지 아이들로 선정이 됐으면 그 아이가 그런 문제를 보일 때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조금 이렇게 범위 밖으로 이렇게 벗어나서 껴 있는 아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 사업별로 어떤 대상 선정기준이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천편일률적이지 않나? 대부분이 이제 소득 기준으로 해서 선발하고 선정하고 추천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정작 어떤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기준에 되지 않아서 지원받은 장학금 같은 경우도 좀 그렇고... 그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객관화된 기준이라는 게 참 애매모호해요. (교육복지사 4)

2)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 발생 이유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 발생 이유로는 아동 또는 보호자의 서비스 거부, 정서적 방임, 교육비 선정탈락, 절차의 어려움, 발견은 쉽지만 도움의 한계가 있었다.

(1) 아동 또는 보호자의 서비스 거부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자 동의가 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필요해서 정말로 대상은 아닌데 참여시키려고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필요 없을 것 같다.”, “싫다.”, “괜찮다.” 우리 아이는 그런 거 별로 안 해도 잘살고 있다. ” (교육복지사 1)

아이가 학교생활 적응이라든지 어쨌든 한 사회 구성원으로 커나가려면 어쨌든 그게 밑바탕이 되어야 되는 그 시점에 있는 아이들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이라든지 교육복지사 선생님이랑 저랑 상의했을 때 꼭 필요한데 안 들어오는 경우가 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결핍이 계속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되게 필요로 하는데 어머님께 얘기하기도 너무 어렵고 얘기해도 잘 안 들으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그런 게 좀 어려워요. (기관실무자 2)

(2) 정서적 방임

수급도 아니고 차상위도 아니고 그냥 일반 4인 가구의 이상의 높은 고소득 부모님이 그 소득이 있는 가정의 아이인데 사실 그렇게 경제적인 잣대를 두고 봤을 때 애는 사실 사각지대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애를 봤더니 어머니, 아버님이 경제 활동을 하느라 또는, 각자가 사느라 주 양육자가 자녀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또는 이제 본인들이 가진 양육관이 조금은 이제 잘못되어 있는 양육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과정 중에 아이들이 마음을 둘 데가 없어서 방황하는 친구들도 사실 사각지대 아니냐... (지역실무자 3)

(3) 교육비 선정탈락

기준에는 못 들어가지만 내가 그 기준안에서 지원받지 못하지만 나는 형평상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런 제도적인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중략). 자발적으로 미신청한 경우. (중략) 그다음에 아까 이제 부양의무자 기준 이런 거기는 하지만 갑작스러운 보호자의 건강상이나 그다음에 실직, 이런 거로 인해서 그 기준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이제 혜택을 못 받는... (교육복지사 5)

국기초에서 차상위로 떨어져서 이번에는 기타소득으로 떨어졌어요. 교육복지 사업안에서는 교육복지 대상이지만 사회적인 입장에서 바라봤었을 때는 애가 대상이 안 됐는데 왜냐하면 집에 재산이 있는데 이 재산이 부모님부터 내려온 땅인데 이게 지금 재개발의 상황에 있어서 팔지도 사지도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는 이런 땅인데 실제 할머니는 정말 이제 한부모 가정이고 조손가정의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드림(드림스타트)도 희망(희망 복지지원단)도 다 이 할머니의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어떻게든 도와줄까? 라고까지는 가고 있지만, 소득에서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모든 기준이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는 거예요. (교육복지사 3)

(4) 절차의 어려움

복잡한 신청이나 직무 서류 예를 들면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있는데 뭔가를 동의서를 받았다는가? 아니면 부양의무자의 금융 거래를 증명하라는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 때문에 신청을 못 해서 사각지대에 내몰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교육복지사 5)

객관적인 어떤 소득 기준이라는 거에 의해서 이제 선정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탈락한 아이들이 있는데 탈락한 아이 중에서는 3차 학교장 추천으로 신청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부모가 서류를 준비하기가 귀찮거나 아니면 준비하기가 굉장히 애매모호하다든지 이런 이유로 해서 아예 지원 신청을 안 하는 경우 굉장히 그냥 어려운 상황인데 자기가 좀 버틸만하다. 라고 해서 안 하시는 경우겠죠. 그런 경우,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 소득 저기 교육비 지원 신청 자체를 아예 할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부양의무자가 가출해서 소식이 없다든지 연락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 (교육복지사 4)

(5) 발견은 쉽지만 도움의 한계

학교 안에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어렵고 사실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아니면 사실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적잖아요. (교육복지사 4)

3)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와 일하며 겪는 어려움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와 일하며 겪는 어려움으로는 문제 유형의 다양성(폭넓은 대상으로 인한 복지 현장에서의 즉각적 대처의 어려움), 결재권자의 인정을 받지 못해 실행하지 못한 경우, 업무의 경계에 끼인 경우, 보호자의 태도, 무기력한 아이들, 서비스 거부 아동(아동과 보호자의 의지 부족에 의한 참여 여부 결정), 가정환경 개입의 어려움 및 사후관리의 부족이 있었다.

(1) 문제 유형의 다양성

저는 이제 문제 성향들이 다양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좀 아이들의 심리 정서적으로 불안전하다. 또 하나는 이제 동의받기가 어렵다. 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문제 성향이 다양한 거는 우리가 보는 아이들이 기초 부진도 있고 또는 경계선 아이들도 있고 또는 일상생활이 좀 잘 안

되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이제 그 대상 학생도 그런데 사각지대 있는 아이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적인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돼서 포함되지 못하는 아이 중에서 과연 우리가 여기까지 해야 하는 건가에 대한 항상 고민이 있었던 것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서적으로 좀 많이 불안정해요.

이게 애네들이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도 대상 학생이 아닌데 소득 수준 70%였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대상 학생이 안 됐어요. 학교장 추천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몰랐거든요. 그랬는데 올해 가정폭력으로 이 아이가 자기 부모를 신고했어요. 아버지를 신고하고 그러면서 문제가 드러나게 된 거였거든요. 그랬을 때 그 아이의 심리·정서적인 문제가 그전부터 있었음에도 우리는 확인 못 했던 부분들 아무도 학교의 구성원들 모두 알지 못했던 것 다만 이제 또래 친구들만 알고 있었거든요. 친구들의 지지가 없었으면 개도 이제 자해나 자살이나 이런 것들을 시도해보려고. (교육복지사 1)

(2) 결재권자의 인정을 받지 못해 실행하지 못함

교사 또는 교육복지사, 업무를 담당하는 누군가가 아동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아동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함에도 부모나 보호자가 인정하지 못해서 계속 방치되는 경우, 그다음에 분명히 복지사나 아니면 업무 담당자가 인지했는데 뭔가 그 아이를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 최종 결재권자인 학교장이나 저희가 마인드가 달라서 인정받지 못하고 실행하지 못할 경우... (교육복지사 6)

(3) 업무의 경계에 끼임

업무의 경계에 끼인 경우, 그러니까 복지 아동이나 일반 아동이나 위클래스 담당이나 복지, 교육복지가 담당해야 하나? 이런 경우에 복지 사각지대 아이들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복지사 6)

(4) 보호자의 태도

실제 우리 학교에 이제 예전에 몇 년 전에 겪었던 학생인데, 경제적으로는 그 가정에 문제가 없어서 저희 복지 대상 아이가 아니었어요. 근데 학교에서 이제 품행에 문제가 있어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학년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데 저와 라포 관계가 좋아서 제가 저희 대상은 아니지만, 아이가 문제가 있을 때 제가 같이 이 아이를 지지해 주고 데려다가 따로 제가 데리고 있고 이런 일을 하면서 그런데 결국 엄마가 교육복지 신청 안 하셨거든요. 제가 상담 지원이라도 해줄 수 있게 3차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엄마가 대수롭지 않게 “안 할 거예요.” 하셔서 서류 내고

가는 거 귀찮으시다고 안 하신다고 그래서, “네.” 그리고 그냥 그렇게 하고 이제 말았었는데, 그냥 계속 그래도 어쨌든 우리 학교 학생이니까 붙잡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호자의 의지... 학생이 겪고 있는 문제와 보호자의 의지가 조금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교육복지사 7)

필요한 친구들이 꼭 있는데 일단 부모님들이 동의를 안 하셔서 동의가 없는 게 현장에서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기관실무자 1)

(5) 무기력한 아이들(무동기)

사실은 무기력인 거지 무기력 아무런 동기가 없으니까 그냥 그 어떤 애는 진짜 사는 게 힘들어서 그냥 놔뒀으면 하는 애가 있을 수도 있고. (교육복지사 4)

사각지대 복지 사각지대 노인 아동이나 학생이나 보호자들의 비자발성, 그다음에 의지 없고 이런 과정에 뭔가를 꼭 필요해 너희들은 이걸 해야 해?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설득하고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참여케 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교육복지사 5)

(6) 서비스 거부 아동(아동과 보호자의 의지 부족에 의한 참여 여부 결정)

정서적인 이런 발달에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을 이제 복지관에서 프로그램들로 아이들한테 개입을 해줘야 하는데 초반이나 제가 입사해서 일할 때 그 초반이나 지금까지의 기준이라고 해야 하나? 그거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서 항상 조금씩 벗어나는 친구들에 대한 개입이 중요한 데 그 중요성은 계속 있는 것 같고요. 입사 초기 때보다는 복지 사각지대라는 게 지금 더 많이 좀 더 중심이 돼서 이슈화가 된 거지 그때는 복지 사각지대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개념 잡고 했던 게 아니라 이 친구 꼭 필요한데 안 한대요. 약간 그런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기관실무자 2)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하는데 엄마랑 통화할 때는 엄마가 신청할게요. 라고 했는데 막상 신청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랑 통화하면 아빠는 그런 거 필요 없다고 하고 근데 알고 봤더니 엄마, 아빠는 이혼했고, 근데 아빠는 애를 돌보지도 못하면서 교육비 지원 신청도 안 하고 애는 계속 방치된 상황. (교육복지사 4)

우리 윤리 원칙 중에 자기 결정의 원칙이 있잖아요. 사회복지사들은 그걸 지켜줘야 한다고 늘 생각하고 있고 생명 존중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면 될 수 있으면 그 자기 결정을 존중하려고 하는데 이런 표현이 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는데 자기 결정권의 뒤에 숨어 있는 자기 방임하는 주

민 또는 자기 방입하는 아동 청소년 학생 (기관실무자 3)

(7) 가정환경 개입의 어려움 및 사후관리의 부족

이 부모가 충분히 또 자기네들이 뭔가 근로 활동을 하고 아이들을 적절하게 케어할 수 있는데 못한 않는...그니깐 무지일 수도 있지만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깐 이 가족을 어떻게 이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거기에서 오는 한계 (교육복지사 5)

교육복지 대상이면 저희 교육복지 선생님들이 지도해 주시니까 복지관에서 저희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저희는 선생님이 전체적인 관리는 하시고 프로그램 운영만 하고 저희는 아이들 그런 그러니깐 가정환경까지는 개입이 안 되고 그냥 아이들 발달과 관련해서 부모님들 예를 들어서 개별 상담을 해서 코칭을 해드린다는지 요 정도 선 같아요. 저희 쪽에 사례관리 대상으로 등록을 시켜서 꾸준히 몇 년을 계속 개입을 하는 그런 사례들도 없지 않은데 그렇게 대부분 넘어오는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성에서 프로그램으로 끝나서 그 시기에 아이들에 대한 개입을 중점으로 이루어지고 그 후에 사후관리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등록하기는 어렵기도 하고 (기관실무자 1)

4)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복지 사각지대 차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의 실무자가 느끼는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차이로는 제도 안에 있어도 맞춤형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대상, 다문화 형태의 복지 사각지대, 인적자원 활용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현장이 가진 물리적 특성(개입 기한의 제한, 프로그램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아동 발견)이 있었다.

(1) 제도 안에 있어도 맞춤형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대상

두 집 다 수급 가정이었던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수급이라는 기준이 아이들이 아니라 부모 또는 조손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어른들이 줌 그게 있었던 것 같고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두 집 그러니까는 사실은 제도 안에 들어와 있던 가정인데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 그 신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네 그래서, 그때 밤늦게 본인의 용돈 그러니까 수급비를 가지고 그 3인 가구가 뭔가 생활하면서 자기가 필요했던 용돈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실 생계의 목적보다는 그 친구는 자기의 어떤 필요한테 이거를 이제 가정 안에서 충당이 안 되니까 아르바이트를 계속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물론 어머니 그때 당시에 아버지가 아르바이트하는 것도 알고 있고 하지만 사실 안 했으면 좋겠는 부모의 마음도 있긴 했겠죠.

근데 그런 걸 다 아는 상황인데도 애가 경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제도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이런 일이 있네. 그러면 아빠는 제도 안에 들어와 있다고 보이지만 아이는 제도 안에서 그럼 이게 또 돌봄이 되는 건가? 또는 가정 안에서 돌봄이 되는 건가? 라는 좀 의문점이 많았던 점이었고 사각지대의 청소년 아동 청소년 사례를 떠올렸을 때 그래도 저희 선생님들이 그 친구를 막 떠올렸던 거는 나라 안에서 또는 제도 안에서 이 아이가 충분하게 돌봄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는 않아서 저희 선생님들도 저도 좀 떠올렸던 것 같아요. (기관실무자 3)

(2) 다문화 형태의 복지 사각지대

다문화 형태의 복지 사각지대가 되게 많아요. ○○동 사는 아이인데 이제 아빠랑 서류상 이혼 안 했어요. 근데 딸과 살고 있어 아빠가 계속 이제 아이나 어머니를 학대해서 그래서 따로 살고 있는데, 엄마는 또 일해. 양부모인데 아빠도 일하고 있고 엄마도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경제적 지원 못 받는 거죠. 근데 어머니가 한글이 잘 안 되세요. 그래서 아이도 초등학교인데도 말이 잘 안 되는 거죠.

학교에서도 그래서 조금 이제 아이들한테 말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외모도 약간 좀 엄마를 많이 닮아서 그런 경우, 조금 이제 학교생활도 어렵고 정부의 지원도 못 받고 요즘에는 그런 다문화 형태의 복지 사각지대가 조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기관실무자 2)

(3) 인적자원 활용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통장님, 저희가 이제 그 통장님과 네트워크를 해서 사업비를 받아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락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통장님한테 의뢰를 계속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희 세대 등록돼 있던 세대 말고도 그 통장님 통해서 발굴돼서 연계된 세대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계속 그렇게 발굴하고 그러니까 발굴이 되면 저희는 이제 쫓아가기가 바쁘니까 직접 탐방하면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그런 거는 있었어요. 지역 탐방하면서 부동산이나 부동산에서 많이 하시거든요. 지역 탐방하면서 그렇게는 발굴해요.

정기적으로 지역 탐방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가게 주인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렇게 사장님들 뵈 볼 때 여기 사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경우가 있어요. (기관실무자 2)

(4) 현장이 갖고 있는 물리적 특성

현장(지역사회)에서 생각하는 복지 사각지대랑 학교 현장이랑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차이점이 있다면 어쨌든 학교 현장은 아이들의 20 몇 명 아이들의 담임 선생님이 계시니까 어쨌든 아이들이 학교 생활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시면 선생님들은 금방금방 케치가 또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빨리빨리 가정환경을 얼른얼른 파악하셔서 저희 현장보다는 그래도 발 빠르게 조금 더 대처해주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 그 담임 선생님이나 교육복지사 선생님이 교육복지 선생님 학교 있는 학교는 그래도 연계가 또 잘되셔서 서로 상의도 하시고 하는 모습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빨리빨리 돼야 하는데, 저희 실천현장은 아동만 딱 그 생활 모습 그런 것들이 파악을 계속 이제 매일 보지만 학교는 저희는 그런 게 아니라 아니니까 발굴할 때도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야 하는 거예요. 이웃 주민 의견도 들어야 하고 그분 가정 방문도 해 봐야 하고... 이 게 한 번인 건지 계속되고 있었던 건지 이것을 시간을 두고 계속 상담을 나가면서 그러니까 그것 만으로도 시간 소요가 많이 되니까 즉각적인 대처가 되지 않는 부분들 그런 게 조금 어렵지 않나 현장에서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각지대가 이제 학교 중심은 아무래도 아동과 부모님 중심이라면 저희는 노인도 있고 그러니까 대상이 폭넓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처 차이가 조금 있지 않을까...... (기관실무자 1)

그리고 개입할 수 있는 기한이 제한되어 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였냐면 1학년 때 만난 친구를 3학년 졸업하면 못 만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이 학교에는 있으신 것 같고 저희는 이용자가 원하고 서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좀 더 그 기한에 제한을 두지 않고 만나고 개입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 노력 이런 것들이 두 현장의 차이이지 않았나..... (기관실무자 3)

프로그램하면서 이렇게 발굴이 돼서 아이의 정서 행동에 그냥 프로그램 일반 프로그램 신청을 한 건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점들이 이제 나오기도 하고 선생님도 처음 보는 아이고 이런 식으로 처음. 사례 그러니까... (기관실무자 2)

2.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 해결 방안

두 번째 대범주로 학교 내 실무자와 지역사회 실무자가 생각하는 복지 사각지대 해결 방안에 대한 제언으로 학교에서 바라는 변화, 지역사회에서 바라는 변화, 제도적 변화의 3개의 중범주로 분석되었다.

1) 학교 현장에서 바라는 변화

복지 사각지대 해결을 위해 학교에서 바라는 변화로는 학교 내 인력풀 시스템 마련(학교 내 인력확충, 1교 1 교육복지사 배치), 학교 역할의 재정립(학생의 안전한 삶 보장, 서비스 개입의 당위성),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교직원의 인식개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서비스의 선택과 집중, 학교 내 통합시스템 마련이 있었다.

(1) 학교 내 인력풀 시스템 마련

대부분이 똑같겠지만 이제 교육복지 한 명이 보살피는 아동 수가 너무 많아요. 그건 이제 공공 현장에 있는 주민센터에 있는 사회복지사라든가 저도 거의 100명 정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어쨌든 혼자 100명을 어떻게 돌봐 말도 안 되잖아요. 보통 한 제가 봤을 때 한 10명에서 20명 정도가 적정선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한 명이 담당하는 아이들의 수가 너무 많아 그래서 약간 인력적인 한계 또 시간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활용하기 이걸 좀 탈피하기 위한 어떤 자원 더 투입돼야 한다는 게 저는 이제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학교 내에서……. (기관실무자 2)

하나는 교육복지사가 교육복지 학교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모든 학교에 교육복지사가 있어야지만 복지 사각지대 아이들이 발굴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절대적인 어떤 아이들의 수를 가지고 교육복지 학교다. 아니다를 지정하는 것 자체가 어떤 복지 사각지대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우리 학교에서는 교육복지 아동인데 애가 전학을 갔어. 전학을 간 학교는 교육복지 학교가 아니야 그러면 애는 결국은 교육복지 대상이라서 지원받을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육복지사가 선택적으로 있는 것 자체가 조금 저는 좀 말이 안 된다. 교육복지사가 모든 학교에 있어야 된다가 복지 사각지대를 탈피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기관실무자 2)

학교에서 문제 중의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선생님들의 어떤 교육복지사의 필요성 인식 협조 이런 것들에 대한 부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학교 내에 어떤 문제 행동을 가진 아이가 생겼어 생겼으면 이것을 학교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학교 안에 인력풀을 활용해서 해결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기관실무자 2)

(2) 학교 역할의 재정립(학생의 안전한 삶 보장, 서비스 개입의 당위성)

학교가 교육의 역할을 해야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아침 먹

고' 라든가 교육복지 선생님이 하는 어떤 일련의 일들이 우리가 이런 것까지는 할 필요는 없는데 왜 우리가 아이 교육만 책임지면 되지 이런 것까지……. (기관실무자 2)

사각지대가 생기는 사례를 떠올렸을 때 사실 학교는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머무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정 다음으로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의 보호, 안전 그리고 성장을 위해서는 학교가 대변하고 옹호할 수 있는 아주 적합한 곳이다.

이거는 행정복지센터,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학교이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들을 할 수 있는 큰 강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목소리를 지역과 같이 내주면 너무 좋겠다. (기관실무자 3)

(3)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교직원의 인식개선

교사의 참여가 무척 중요한데 사실은 가장 먼저 발굴할 수 있는 게 교실에서 가장 일차적으로 발견이 돼서 저희한테 의뢰가 많이 되니까…. (중략)…. 어쨌든 교사들이 관점은 다르지만 그래도 아이들에 관한 생각들은 되게 많고 관심들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발굴할 수는 있는 게 교사인데 또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마다 약간 관점이 되게 달라요. 그래서 이 인식개선의 교육도 되게 중요하다. (교육복지사 3)

■ 사례

학교 현장에서는 발견은 금방 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출결이나 또 이려고 걸모습을 봤을 때도 저 친구는 왜 한여름에도 저렇게 긴 소매 옷을 입고 다녀? 아니 왜 잠바를 계속 입고 다녀? 이렇게 해서 보면 뭔가 발견되는 게 있어요. 가정 형편을 떠나서 이런 정서적인 면도 발견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또, 지원하고 상담도 들어가고 하는 경우인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담임 선생님이 또 반응을 해주시면 좋은데…. 그냥 “재는 항상 그래요” 이렇게 넘어갈 때는 저희가 또 관여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었고…. (중략)…. 그런 상황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발견이 쉽지만 도와주는 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느낄 때가 있더라고요. (교육복지사 8)

어쨌든 담임선생님이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아이들과 생활하고 계시고 또 어쨌든 아이가 뭔가 이렇게 건강하고 학교생활을 잘하잖아요. 이런 연관성이 있으니까 뭔가 아이가 결석을 많이 한다거나 그냥 아이의 의복이나 이런 것들을 담임선생님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학교가 이런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 가장 잘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생님들이 그런 좀 아이들의 그런 학습 외의 부분에 예민해야 한다. (교육복지사 2)

(4)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서비스의 선택과 집중

교육복지 대상 아이들만 데리고 프로그램 자체 하는 것 자체가 아이들한테 낙인 감이나 또 자신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으므로 저는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전체 아이들한테 오픈돼야 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단순한 교육 예산으로는 당연히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전체 아이들을 하는, 전체 아이들을 위해서 오픈된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에 일반 예산이 같이 들어와서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교육복지 예산은 그중에서도 문제 행동이 있는, 아니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 교육복지 아이들을 데리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비가 따로 있어야 하고, 전체 아이들을 데리고 할 수 있는 예산이 따로 있어야 한다. 라고 저는 현실적으로 조금 생각하고 있고요. (기관실무자 2)

(5) 학교 내 통합시스템 마련

특성별로 서비스를 주는 대상자를 발굴하고 그런 걸 할 때 학교 내에서 통합적인 시스템 정도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좀 마련되면 더 좋겠다. (교육복지사 5)

상담사 선생님은 위클래스에 게시다 보니까 아이들 사례를 많이 접하시더라고요. 아이들하고 상담하면서 그런 이제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는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교육복지사 2)

2) 지역사회에서 바라는 변화

복지 사각지대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바라는 변화로는 균등한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의 배치, 학교와의 정보 공유, 대상 선정기준의 확대,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 지역사회 내 복지 사각지대 아동을 위한 지원시스템 마련이다.

(1) 균등한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의 배치

각 동에서 토스하거나 아니면 그 사례를 할 수 있는 복지관이 없어서 이렇게 좀 사각지대 지역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학교 학생들이 보이는 문제, 요즘 아이들이 보이는 문제 행동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각 센터가 있는데 도박중독센터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중독 센터 만약에 지역기관에다가 원한다면 지역기관에 원한다면 이런 센터들이 사실은 서구에만 집중돼 있는데 이런 게 조금 지역별로 있어서 그 지역 아이들한테는 이런 서비스가 계속 제공될 수 있다. 라고 하면, 우리가 만약에 그런 아이들을 발굴했을 때 그렇게 좀 이렇게 그 기관들하고 연결해주

는 거로 해서 그런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학교 안에서만 쫓쫓 싸매고 있으려면 사실은 우리 일이 더 늘어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담당자의 관심이라든가 보는 눈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데, ‘이거 내 일이 아니야’ 라는 시각으로 일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외면하게 되기 시작하면 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조금 그런 부담을 덜어서 할 수 있게 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어떤 지역기관의 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복지사 4)

(2) 학교와의 정보 공유

학교와 공유가 필요하고 학교에서 모르시는 그런 재단(복지재단)의 정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역에 이런 자원이 있는 걸 학교에서는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정보력을 현장에서 갖고 그런 것들을 학교랑 계속 공유하면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라는 거를 알려드리면서 해야 그러면 딱 발굴됐을 때 여기 이렇게 해서 한번 연계해 보면 좋겠다. (기관실무자 1)

(3) 대상자 선정기준의 확대

우리가 학교 내에서 보편적 서비스를 한다고 해도 지역에서 그걸 받쳐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교육복지 대상자로 선정해도 막상 적절한 서비스를 의뢰하려고 하면 개는 지역사회에서는 그런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 내에 이런 일을 하는 모든 기관이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서 아까 말한 대로 담당자의 권한을 더 주고 그 책임에서는 조금 자유로울 수 있게 왜냐하면 이 복지 사각지대를 한 제한 제한을 좀 풀어준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얘기를 복지 사각지대에 아이로 선정해서 서비스를 주는 거에 대한 책임에서 굉장히 그거를 두려워하는 거죠. ‘왜 애네는 지금 어떤 기준으로 왔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역기관이나 지역사회 내에 공공기관들도 복지 사각지대 아이들은 의뢰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고 그거에 대한 책임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완화해 주고 그런 부분……. (교육복지사 5)

(4)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 활용과 지역사회 내 복지 사각지대 아동을 위한 지원시스템 마련

학교랑 같이 이렇게 사례관리 우리 협의회처럼 그런 것들이 이제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서 공유가 많이 되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든 저희든 그렇게 그냥 계속 그런 복지 사각지대 복지 현장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받으면서 그런 것을 알아가는 게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제 아동 중심으로 조금 개입한다면 지역사회에서는 그 아동의 가정 좀 더 초점을 두고 개입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아동 중심으로 조금 더 봐주고 계시면 저희가 또 그 외적으로 환경에서 어떻게 개입할지 고민하면서 개입을 하면은 전체적인 균형이 맞지 않을까... (기관실무자 1)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우리가 나이스를 교육비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냥 사회 보장 서비스 전산 서비스 행복 이음인가요? 그거를 우리도 좀 보면 어떨까 아니면 우리도 입력할 수 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데이터가 나이스로 보는 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세부적이지도 않고 또 이게 드림스타트나 다른 기관하고 연결할 때 보면 우리가 또 물어봐야 하는데 공문 보내야 하고 또 이제 담당자한테 사정 설명해서 받아서 다시 개인정보 처리해야 하고 이런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 하나 그리고 가장 큰 거는 결론적으로 법 제도 개선인 것 같아요. (교육복지사 1)

우리 학교에 누구 누가 이런 아이가 있으면은 복지실로 연결을 해라, 아니면 복지사가 없는 데는 복지관에 연결해라 이런 뭔가 시스템 그러니까 복지 학교가 아니어도 우리 학교에 이런 애가 있다. 라고 이제 주민센터든 아니면 복지관이든 전화했을 때 그런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고 (교육복지사 2)

3) 제도적 변화

복지 사각지대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변화로는 보편적 서비스로의 지향(선택적 복지서비스의 탈피), 법, 제도 안에서의 실무자 역할과 권한에 대한 제도적 강화, 동의 절차의 간소화가 있었다.

(1) 보편적 서비스로 지향

돌봄이라든지 상담도 보편적이긴 한데 그래도 되게 제약이 완전히 오픈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에 교복우(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서비스 측면은 우리가 학교 내에서는 보편적 서비스로 갈 수 있는 좀 토대가 마련되면 이 복지 사각지대가 분명히 없을 것 같고……. (교육복지사 5)

교육복지 대상만 데리고 교육복지를 하는 거는 조금 어떤 보편적 복지에서는 좀 벗어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택적 복지는 지양하고 교육복지라도 모든 아이가 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형태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원하면 신청을 전체 아이들한테 공개하고 교육……. (기관실무자 2)

(2) 법 제도 안에서의 실무자 역할과 권한에 대한 제도적 강화

가장 큰 거는 결론적으로 법 제도 개선인 것 같아요. 아까도 이제 권한 얘기하시고 그랬지만 그렇게 부여하려면 결론적으로는 이 법 자체가 조금 바뀌거나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활동 자체에 조금 힘이 들어가야지 우리가 움직이는 데 또 좋지 않을까? (교육복지사 1)

교사나 교육복지사들한테 권한 그다음에 책임 그 책임이라는 건 아무튼 민원에 대한 책임은 이들에게 지게 하면 솔직히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뭔가 지원하는 데 한계가 분명히 오기 때문에 그런 책임은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대신 권한은 굉장히 강화해줘야 하고 그런 부분이 담임 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뭔가를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한발 물러서는 게… 책임, 그러니까 괜히 내가 오지랖을 부렸고 뭔가 애네들한테 뭘 지원해주려고 했는데 그게 되려 다른 민원으로 오게 되는 거 민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도적인 뭔가 지원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교육복지사 5)

(3) 동의 절차의 간소화

근데 그 전화를 했을 때 동의를 받는 부분 왜냐면 아마 담임 선생님도 그거예요. 학부모한테 연락해서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야 교육청이든 어디든 지원을 받죠. 의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의뢰받은 기관에서도 어머님께서 전화할 때도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담임 선생님이 어려운 아이가 있어 복지사 선생님께 연결하고 싶어 저한테 왔어, 그럼 제가 어쨌든 어머님께 전화해서 저 사회 복지사인테요.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아이를 의뢰하셨네요.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런 동의 절차가 조금 간소화되거나 아니면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다 안내가 돼서 담임 선생님이나 그런 외부인들이 좀 어려운 아이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게 절차가 조금 간소화됐으면 좋겠다. (교육복지사 2)

제2절 소결 및 논의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장 실무자와 지역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무자와의 심층 면접을 통해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1)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의 대상, 2)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의 발생 이유, 3)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와 일하며 겪는 어려움, 4) 학교와 지역사회에서의 복지 사각지대의 차이와 함께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의 해결 방안에 대해 1) 학교에서 바라는 변화, 2) 지역사회에서 바라는 변화, 3) 제도적 변화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교육복지사와 유관기관 사회복지사들이 생각하는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의 대상으로는 소득에 기준에 들어오지 못하는 아이들로 교육비 선정기준에서 탈락한 아동들, 학교 부적응(또래 관계의 어려움,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 돌봄의 결핍이 있는 아동들, 그리고 학교 내 서비스들 사이에서 대상 기준에서 제외된 아동, 학교 밖 학생들을 복지 사각지대 대상 학생으로 보았다.

여기서 관심 있게 보아야 할 것은 경제적 기준에 의한 복지 사각지대가 대상뿐이 아니라 아동의 발달 특성과 학교라는 공동체의 특성에 의해 학교 부적응(심리·정서적 어려움, 또래 관계의 어려움)과 돌봄의 결핍, 학교 밖 학생들을 복지 사각지대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의 발생 이유로는 1) 서비스 거부 2) 정서적 방임 3) 교육비 선정탈락 4) 절차의 어려움, 5) 발견은 쉽지만 도움의 한계, 아동의 보호자 태도와 인식에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다음의 범주인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와 일하며 겪는 어려움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복지사와 유관기관 사회복지사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와 일하며 겪는 어려움으로는 1) 문제 유형의 다양성과 폭넓은 대상자로 인한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대처의 어려움 2) 결재권자의 인정을 받지 못해 실행하지 못한 경우, 3) 업무의 경계에 끼인 경우, 4) 보호자의 태도(보호자가 인정하지 못하는 경

우, 주 양육자의 부재), 5) 무기력한 아이들(무동기), 6) 서비스 거부-클라이언트와 보호자의 의지 부족에 의한 참여 여부 결정, 7) 가정환경 개입의 어려움 및 사후관리의 부족으로 보호자와 아동의 서비스 거부에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학교와 지역사회에서의 복지 사각지대의 차이로 1) 제도 안에 있어도 맞춤형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대상, 2) 다문화 형태의 복지 사각지대 3) 인적자원 활용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4) 현장이 가진 물리적 특성(개입 기한의 제한, 프로그램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아동 발견)으로 학교라는 공간이 갖는 특성에 따른 차이와 함께 요즘 대두되고 있는 다문화 형태의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 지역사회 실무자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교육복지사와 유관기관 사회복지사들이 제안한 복지 사각지대의 해결 방안으로는 1) 학교에서 바라는 변화, 2) 지역사회에서 바라는 변화, 3) 제도적 변화로 제언을 하였는데 학교에서 바라는 변화로는 학교 내 인력풀 시스템 마련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는 학교 내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1교 1 교육복지사 배치, 시대가 변함으로써 교육기관으로 학교 역할에서 아동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 옹호하는 역할로의 재정립,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교직원의 인식개선, 교육복지서비스의 선택과 집중, 학교 내 통합적인 시스템 마련을 제언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바라는 변화로는 1) 균등한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의 배치 2) 학교와의 정보 공유 (네트워크 시스템), 3) 대상 선정기준 확대, 4)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 지역사회 내 복지 사각지대 아이들을 위한 지원시스템 마련으로 아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네트워크의 필요성에 대해서 중요하게 제시하였으며, 지역 내에 편중된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이 고르게 배치되어 학교 내 다양한 문제를 가진 학생들이 지역기관에 연계하여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다양한 문제를 가진 학생을 그에 맞는 지역기관에 연계하여 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게 되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제도적 변화로 1) 보편적 서비스로의 지향과 선택적 복지서비스의 탈피, 2) 법·제도 안에서 실무자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 3) 동의 절차의 간소화를 복지 사각지대 해결 방안으로 제언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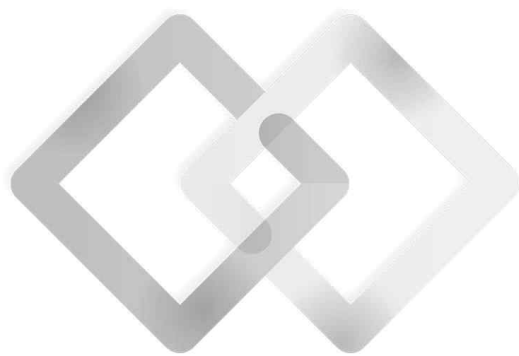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교육복지사와 유관기관 사회복지사들이 제언한 복지 사각지대 해결 방안에서 특별히 더 강조된 하위 범주를 꼽자면 복지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기 위해 1교 1 교육복지사의 배치와 학교와의 정보 공유(네트워크 시스템), 동의 절차의 간소화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의 적극적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실무자의 권한을 강화하고 역할의 당위성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을 특별히 강조하였고, 이런 해결 방안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알려준다.

2022년
참여형 현장연구
지원사업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질적 연구**



제5장 결론 및 제언



제5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결론

본 연구는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와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하려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학교 현장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에서 복지 사각지대 아동과 일해온 실무자를 대상으로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 대상, 발생이요, 복지 사각지대와 일하면서 어려움,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복지 사각지대의 차이와 해결 방안에 대한 초점집단면접과 심층 면접을 시행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

1)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 대상

연구참여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 대상은 학교에 재학 중 이면서 교육비 지원에 탈락한 학생, 복합적인 문제로 학교 부적응 학생, 보호자의 부재로 인한 돌봄의 결핍 환경에 노출된 학생, 다양한 서비스 사이에서 배제된 학생, 학교 밖 학생으로 나타났다.

학교는 매년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한다. 이는 학생의 법적 보호자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법적 보호자의 소득에 따라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현재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대상 학생은 중위소득 80% 내외로 법적 보호자의 소득이 중위소득 80%가 넘어가면 서비스 대상에서 탈락한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은 학교 내에서 저소득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취지와 다르게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역차별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학생을 복지 사각지대로 몰아내는 셈이다.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 대상은 경제적 소득 외에 또래 관계에 어려움을 겪거나, 심

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 부적응 학생과 애매모호한 경제적 소득으로 인해 학교 내 다양한 서비스 지원에서 배제되는 학생들, 즉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 문제 유형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지원을 하지 못한 경우, 또한 방과 후 보호자가 생계로 인해 자녀를 돌보지 못하는 돌봄의 공백과 방임적인 가정환경에 노출된 학생을 복지 사각지대 대상으로 보았다.

학교는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기준을 통해 교육복지 서비스 지원 대상자와 비지원 대상자로 구분하는 데 지원이 탈락한 학생은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할 방법이 없다. 이러한 문제점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노출된 대상자와 같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학교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경험해본 교육복지사들은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에 탈락한 학생만의 복지 사각지대가 아니라 아동·청소년기 발달단계에서 나타나는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 적절한 서비스 지원이 되지 않은 경우도 복지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았는데, 이는 현재 사회복지에서 정의하는 복지 사각지대 대상보다 학교 현장에의 복지 사각지대 대상을 더 광범위한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마지막으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문제상황에서 교사를 비롯한 교육복지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등 학교 내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다양한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례관리가 이루어지지만, 학교 밖 학생은 발견도 어렵고 지원하기도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에 노출된 대상으로 볼 수 있다.

2)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 발생 이유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로 학생 또는 보호자의 서비스 거부, 정서적 방임, 교육비 선정탈락, 교육비 및 교육급여 신청 절차의 어려움, 복지 사각지대에 노출된 학생의 발견은 쉽지만 적절한 서비스 연계 및 지원의 한계가 있었다.

학생 또는 보호자의 서비스 거부는 학생 또는 가족 구성원이 복합적인 문제에 노출되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도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다. 특히 학교 현장은 만 14세 미만의 학생일 경우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법적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실질적으로 지원할 방법이 없다. 또한 가정 또는 학교에서의 정서적 방임 또한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로 나타났다. 정서적 방임의 학생들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경제적 어려움은 없지만, 보호자 또는 교사의 무관심으로 가정 및 학교 주변에서 방황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의 대상이 된다.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소득 기준(중위소득 80%)이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중위소득 기준의 경계에 있는 애매모호한 학생들을 제도적 사각지대로 내몰고, 학교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회서비스를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 발생 이유로 교육비 및 교육급여 신청 절차의 어려움을 들었다. 교육비 및 교육급여 신청 및 제출서류의 복잡함,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건강보험료 영수증, 폐업신청서, 부채증명서)가 갖춰지지 않을 때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서류를 갖춰 신을 한다 해도 소득 수준을 넘어서 탈락하여 추가 대상자로 선정되기도 일정 비율이 정해져 있어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도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법적 보호자의 무지하거나 지원이 필요함에도 신청하지 않을 때도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며, 교육복지사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노출된 학생의 발견은 어렵지 않지만, 학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의 한계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으면 지원하는 서비스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이유도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뽑을 수 있다.

3)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와 일하면 겪는 어려움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와 일하며 겪는 어려움에는 문제 유형의 다양성(폭넓은 대상으로 인한 복지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대처의 어려움), 결재권자(교장, 교감, 부장 교사 등)의 승인을 받지 못해 서비스 지원을 하지 못한 경우, 업무의 경계에 끼인 경우, 보호자의 태도, 무기력한 학생들, 서비스 거부 학생(클라이언트와 보호자의 의지 부족에 의한 참여 여부 결정), 가정환경 개입의 어려움 및 사후관리의 부족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복지 사각지대의 대상이 빈곤 아동이 주요 대상자였다면 최근에는 기초 부진, 경계선 지능 학생, 일상생활이 잘 안 되는 학생, 아동학대에 노출된 학생 등으로 학교 내에서 학생의 문제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음에 따라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와 함께 일하는 교육복지사와 사회복지사들은 급격한 변화에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으나 제도적 제약과 학교 현장의 특수성으로 한계를 느끼고 있다.

또한 학교는 다학제가 공존하는 곳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경험하지 못한 결재권자(교장, 교감, 부장 등)가 복지 사각지대에 노출된 학생의 문제에 대해 정확한 판단과 서비스 지원 승인이 나지 않을 때 어려움을 겪는다.

학교 내에서 학생지원 업무의 경계에 끼인 경우, 즉 복지 사각지대에 노출된 학생에게 문제가 발생하고 학교에서 그 문제를 인식했을 때 그 학생의 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 내 전문 인력(교육복지사, 전문상담사, 교사 등) 중 누가 담당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업무 분담이 명확하지 않을 때 교육복지사는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무기력한 학생들을 만났을 때 학교 내에서 학생이 무기력에 대한 다양한 지원들이 마련되었음에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학생에게 문제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과 보호자의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 부족 또한 복지 사각지대와 일하면서 겪는 어려움이다.

마지막으로 학교는 입학과 졸업이라는 일정한 교육과정을 거친다.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하더라도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도 탈락 시 더 이상 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서비스 지원에 대한 명분이 불명확해지고, 지역사회에 사후관리 연계가 되지 않은 상황에도 교육복지사는 어려움을 느낀다. 특히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제도적 기준으로 민간기관에서도 이들을 돕기 위한 뾰족한 방법이 없다.

4)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복지 사각지대 차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중점학교에 상주하는 교육복지사들과 지역 내 유관사업을 진행한 기관실무자들은 학교와 지역사회에서의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견해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에서 복지 사각지대 대상에 대한 차이다. 지역 내 유관기관 실무자는 최근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정의로 제도 안에서 보호는 받고 있으나 서비스 대상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대상,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없으나 다문화가정으로 자녀가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대상, 자녀가 있으나 실질적인 독거노인, 혼자 사는 장애인 등을 복지 사각지대로 대상으로 정의했다.

반면 학교에서 상주하는 교육복지사들은 복지 사각지대를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대상에 탈락한 애매모호한 중위소득 가정 학생,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없으나 학교 부적응,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 학교 밖 학생들을 복지 사각지대 대상으로 정의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복지 사각지대는 사회복지 제도 안에서 경제적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복지 사각지대는 는 경제적 소득 기준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려움에 노출된 학생도 복지 사각지대라고 한다.

둘째,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방법에 대한 차이다. 지역 내 유관기관 실무자들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할 때 지역사회 오랫동안 거주했던 인적자원(통장, 부녀회장 등)을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한다. 또한 지역사회 복지기관과 네트워크를 통해 발굴한다. 학교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담임교사나 교직원을 통해 또한 교육복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발굴한다. 그럼에 따라 지역 내 유관기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은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실질적인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이고 학교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가족이 대상이 된다. 학교는 지역 내 유관기관에 비해 아동·청소년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쉽다.

반면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더라도 지역 내 자원을 연계하거나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학교가 위치한 지역에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부재하거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사회복지 기관이라면 학교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려 하더라도 지역적 특성에 따라 어려움이 발생한다. 지역 내 유관기관도 지역사회에서 아동·청소년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도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에 대한 정보의 부재, 가족 개입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와 유관기관의 네트워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셋째, 복지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서비스 지원의 지속성에 대한 차이다. 지역 내 유관기관은 복지 사각지대에 노출된 대상이 그 지역사회에 지속해서 거주하면 사회복지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한다. 반면, 학교는 복지 사각지대에 노출된 학생이 졸업하거나 중도 탈락을 한 경우는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 아마도 서비스 지원의 지속성이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와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의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 해결 방안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 뿐만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 민관기관의 역할이 중요한데,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보호자를 변화시켜야 하고, 학교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지역사회 복지기관을 변화시키고 지역사회 자원을 잘 활용해야 한다.

1) 학교 현장에서 바라는 변화

학교 내 실무자와 지역사회 실무자가 생각하는 복지 사각지대 해결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에서 바라는 변화로는 학교 내 인력풀 시스템 마련, 학교 역할의 재정립,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교직원의 인식개선, 교육복지 서비스의 선택과 집중, 학교 내 통합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학교 내 인력풀 시스템 마련은 학교 내 전문 인력이 돌보는 아동 수가 너무 많다.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사회복지사도 100명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데 학교 내 전문 인력도 담당하는 학생 수가 70~100명 정도이다. 또한 모든 학교에 교육복지사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사업 학교의 경우는 대부분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이다. 학교 내 문제 행동을 가진 학생이 있으면 학교 내 인력풀을 활용해서 해결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

학교 역할의 재정립에서는 학생들의 보호, 안전 그리고 성장을 위해서는 학교가 대변하고 옹호할 수 있는 아주 적합한 곳이다.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교직원의 인식개선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교사이기 때문에 교사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며 교직원의 인식개선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식개선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교육복지 서비스의 선택과 집중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도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그램 지원 및 예산지원을 통해 도움을 주어야 하며 학교 내 통합적인 시스템 마련은 학교 내 다양한 전문가들이 학생의 문제를 파악하고 발굴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2) 지역사회에서 바라는 변화

지역사회에서 바라는 변화로는 균등한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의 배치, 학교와의 정보 공유, 대상자 선정기준의 확대,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사회 내 복지 사각지대 아동을 위한 지원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균등한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의 배치로는 각 시군구에 대상에 맞는 복지기관이 배치되어 사각지대 지역이 사라져 한다고 하였고 타 지역구의 아동이라고 해서 서비스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애매모호한 경계에 있는 지역의 아동도 담당 지역이 아니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닌 지리적으로 가까운 그곳에 있는 기관에서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

학교와의 정보 공유는 지역사회 기관과 학교가 지속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대상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자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며 대상 선정기준의 확대는 지역사회에서도 학교와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소득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의 경우는 그 경계를 낮추면 더 많은 학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사회 내 복지 사각지대 아동을 위한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사회보장 서비스(행복e음)도 공유함으로써 지속적인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3) 제도적 변화

제도적 변화로는 보편적 서비스로의 지향, 법·제도 안에서의 실무자 역할과 권한에 대한 제도적 강화, 동의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

보편적 서비스로의 지향으로는 학교 내의 전문 인력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활동 등이 보편적 서비스로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고 필요한 모든 학생이 교육복지 서비스에 참여함으로써 낙인감이 해소된다.

법·제도 안에서의 실무자 역할과 권한에 대한 제도적 강화에서 실무자들이 복지 사각지대 학생과 가족과 일하면서 겪는 어려움으로 보호자의 동의를 받는 어려움, 학생과 보호자의 무기력으로 인해 서비스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었다. 또한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도움을 줄 때 실무자에게 권한이 없어서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법·제도 안에서 권한을 부여하며 적극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면서 발생하는 책임이 최소화되면 보다 신념과 책임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보호자 동의 절차 간소화는 학교 내 학생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보호자가 동의가 없으면 학생의 문제 해결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다. 즉, 신청주의에 기초한 현재 상황에서는 복지 사각지대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무자가 복지 사각지대를 발견했을 때 직접 신청하여 지원할 방안 등, 실무자의 권한을 강화하고 역할의 당위성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제도의 마련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해야 한다.

제2절 정책적 제언

위 내용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는 복지 사각지대 개념의 확장이 필요하다.

기존의 복지 사각지대는 경제적 수준에 따른 소득 선정기준으로 수급자와 비수급 자를 나누었다. 2021년 9월,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분적으로 완화된 것에 불과하다.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 학생도 2022년 5월 31일 기준으로 중위소득 80% 이내로 완화되었지만, 코로나19 이전에는 중위소득 60% 이내의 학생들만 교육비 지원 혜택을 받았다.

즉 결과적으로 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에 의해 저소득층 지원 혜택을 받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도 제기되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가게의 수입이 줄어들고 일자리를 확보하지 못한 가정의 경우 수입은 없지만, 자산이 있는 이유로 교육비 지원 혜택에서 탈락하거나 누락 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법으로 그 기준을 완화하기 어렵다면 대전광역시 조례를 통해서 그 기준을 정하고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또한, 경제적인 수준 외에도 학교 내에서는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도 있다. 최근 우울, 불안, 자해, 자살, 학교폭력,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등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 이러한 학생들도 복지 사각지대의 개념에 포함해 학교 안에서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며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학생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학교 내 전문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

학교는 다양한 학생들이 생활하는 곳이다. 특히 다양한 문제를 가진 학생들이 활동하다 보니 교원을 제외한 다양한 전문 인력이 상주하여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사례관리가 필수적이며 이러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 사회복지사가 필요하다. 홍성대(2011)는 사례관리는 사각지대 해소의 효과적인 수단이며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전문가에 의해 제공되는 임상 서비스라고 하였다. 송지현(2016)은 복지서비스가 늘어나고 대상자도 확대되면서 담당자의 업무 과중과 복지 사각지대 신규 발굴의 어려움 때문에 복지 전담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최경일(2022)은 학교 내 사회복지사는 그 자체로 아동 돌봄의 중요한 자원이며 이를 위한 전문성과 강점이 있다고 하였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사회복지 전문인력들은 사각지대 발굴에 큰 역할을 하였고 사례관리를 통해 부수적인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이처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학교 내 전문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

셋째, 대전광역시만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매뉴얼 필요하다.

과거의 사회복지정책이나 사회복지사업은 주로 중앙정부 주도 아래 일률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활성화로 인해 시군구를 중심으로 지역 단위의 서비스 생산, 전달, 관리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공공의 영역에서는 희망 복지지원단과 동 복지 허브화를 거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공공사례관리가 진행되고 있고 민간영역에서도 기존에 진행해오던 민간사례관리가 체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런데도 복지 사각지대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학교 현장의 전문 인력과 기관별 유기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송파 세 모녀의 상황처럼 지역사회와 학교가 위기 학생(가정)을 인지하고 개입하고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할 수 있는 매뉴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에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로, 연구에서 이야기하는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의 주 대상을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이에 학교 밖 청소년(아동)은 본 연구에 고려되지 못한 한계가 있으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중점학교 교육복지사와 지역사회 유관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로써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일부 영역에 한정된 주제이거나 특정 지역을 한정하여 조사한 것으로 대전광역시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 전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런데도 이 연구를 통해 학교 내 근무하는 실무자와 학교와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실무자들이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 대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과 어려움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취합 정리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해 대전시 학교 내 재학중인 아동 청소년의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참고문헌

- 강지원·최혜진·황안나·조동훈·김주리·강창희(2021). 사회보장 분야 사각지대 축소 및 부정적지출 관리 방안연구-긴급 지원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공주은(2020).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방안.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교육부(2022). 2022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지침 등 안내.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4). 지역사회교육전문가(학교 배치 교육복지사) 역할, 이렇게 합니다.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 권영숙(2020).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참여경험과 학교, 생활 적응 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광주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애·류방란(2013). 교육복지 추진사례 분석: 통합적 접근모색.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연구발표회논문집, 495-524.
- 김명숙(202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중학교 학생의 진로결정수준 연구. 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신영(2011). 교육복지 대상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지지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WE Start 사업의 비교.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원섭(2013). 국민연금 사각지대와 해소방안 연구.
- 김은하·한경훈(2018). 복지 사각지대의 개념 고찰과 빈곤 정책에의 함의. 한국사회보장학회. 춘계학술대회. pp. 259-284.
- 김정원·최영태·김경애·김민·양병찬(2007).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운영 모델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CR 2007-24.
- 김정원·김성식·박인심·김도희·김기범·김경애·이은미(2009).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중단적 효과 분석 연구(1차년도).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제선(2011). 노인 의료보장 사각지대 진입·탈출 요인분석. 사회보장연구, 27(4), 295-325
- 김진욱(2020). 복지 사각지대 해소방안 논의-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을 중심으로. 한국지역복지정책연구회.
- 뉴스핌(2019. 10. 4.).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더 어려운 고위험군 선정 못 하는 한계 드러내.
- 대전광역시교육청(2022). 「따라 하기 쉬운 2022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매뉴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매뉴얼
- 문경민(2015).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도 교육청 「행복 나눔」 교육복지사업 과정평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림대학교.

- 매일경제(2020. 8. 10.). 랜선 너머 방치된 아이들…. ‘돌봄 사각지대’가 위험하다.
- 민연아(2020). 복지 사각지대 관리를 위한 블록체인 분산 ID기술 적용 연구. 인터넷방송 통신연구소(IIBC). Vol. 20, No. 6, pp. 145-150.
- 보건복지부(2019). 복지 위기 가구 발굴대책 보고서.
- 보건복지부(2022). 수원 세 모녀 사건 계기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전반 점검.
- 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보장 분야 사각지대 축소와 부정적 지출 관리 방안연구.
- 브레이크뉴스(2021. 4. 12.). 대전시교육청, 복지 사각지대 취약 학생지원.
- 성은미(2020). 경기도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성과(performance) 영향요인 분석. 사회와 복지, 69-90.
- 송지현·김구·김성아(2016). 맞춤형 급여 도입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시민 지원방안 연구. 대전복지재단.
- 안병렬(2009). 교육복지사업에서 학교와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서울지역 교육 복지 사업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연합뉴스(2022). 대전교육청, 취약계층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 모든 학교로 확대.
- 오운섭·함영진·강지원·이세미·이규환·하현상·박종선·장호석·박상철(2016). 부정수급 및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사회보장 모니터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우리말샘(<https://opendict.korean.go.kr>)
- 울산제일일보(2021. 7. 1.). “친구들이 빨리 나아서 학교로 돌아오면 좋겠어요”.
- 이경만(2017). 한국 공공 교육기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사회통합 전형제도지원 프로그램의 비교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상오(2000). 평생학습사회 구축을 위한 교육복지 체제의 모형개발. 한국성인교육학회, 1-49.
- 이인숙·김영미·박지영(2018). 교육복지 유관사업의 중복성과 사각지대 분석: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학회. Vol. 42, 1-28.
- 이정기·김윤영(2016). 비수급 빈곤층의 생존 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보건사회연구 Vol. 36. No. 2. pp. 280-310.
- 이진구(2020).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전산시스템 도입 가능성 연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전산시스템 도입 추진 실패 원인 또는 당사자 의견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완섭·황남희·정은희·이아영·정용문·윤여선·신봉하·안영·최은혜(2019). 사회보장 분야 사각지대 축소와 부적정 지출 관리 방안연구-노인에 대한 공공부조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전구훈(2021). 즐거운 학교, 행복한 학생을 위한 학교조직 개편방안, 복지·교육 사각지대 아동발굴과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 전문 인력 확대 방안 토론회.
- 정동철(2016). 데이터기반 교육정책 분석연구(V):교육소외 계층을 위한 교육지원 실태 분석(RR2016-09).[KEDI] 연구보고서, 1-178.

- 정종삼(2017). 저소득 가정 청소년에 대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효과분석: 경기도 ○○○영어체험 교육프로그램참여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정경·창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중도일보(2019. 11 .6.). 대전시-교육청 상생 교육 물꼬. 학교 현장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지은혜(2019). 기술·가정 교과를 이수한 고등학생의 예비 부모교육에 대한 이해: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충청투데이(2022. 3. 3.). 대전 삼부자 사망사건... 사회복지 안전망 구멍 드러났다.
- _____ (2022. 2. 28.).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8년 대전 삼부자 비극 못 막았다.
- _____ (2022. 3. 10.). 여전한 복지사각지대 사회안전망 보다 촘촘히.
- 한국교육개발원(2010). 21세기 교육복지 발전방안 연구.
- 한국교육개발원(<https://edpolicy.kedi.re.kr>)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생각하며. 교육복지 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 한국조세연구원(2013). 복지 사각지대 현황과 해결방안(자료집)
- 한국민족문화대백과(<http://encykorea.aks.ac.kr>)
- 한경훈·허용창·김동진·문혜진(202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수급 원인에 관한 질적 연구-동태적 모델에 기반을 둔 틀 분석. 사회복지정책, 47(1), 143-167.
- 한명복(2014). 교육복지 집중지원 정책의 교육 효과성 검증: 단위 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광운대학교.
- 한양대학교 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http://eduwelfare.net>)
- 한유경(2013).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 효과분석,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허용창·임세희·문혜진·양다현·김동진(2021). 기초보장 통합조사 행정체계의 현황과 효과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3(2), 167-190.
- 허지선(2020). 초등교사의 교육복지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서울지역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성대(2011). 복지 사각지대 해소방안으로서의 사례관리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Vol. 3. No. 2. pp. 127-149.
- 황 진(2020).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 초등학생들의 진로 체험행사의 효과성 연구: 자아존중감과 진로 태도 성숙도를 중심으로,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Rabiee, F. (2004). Focus-group interview and data analysis. *Proceedings of the nutrition society*, 63(4), 655-660.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현장연구 2022-1]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질적연구

발 행 일 : 2022년 12월

발 행 인 : 김 인 식

발 행 처 :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주 소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3층(우:34917)

전 화 : 042-331-8901

팩 스 : 042-331-8924

홈페이지 : <http://www.daejeon.pass.or.kr>

인 쇄 처 : (주)유선애드플랜

ISBN 979-11-92238-07-4

이 책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 있습니다.
